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4년 2월
석사학위 논문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성적 경고자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경험 분석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최 세 희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성적 경고자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경험 분석

Analyzing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a
Mentoring Program for Academic alert college
students through Text Network Analysis

2024년 2월 23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최 세 희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성적 경고자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경험 분석

지도교수 권 해 수

이 논문을 상담심리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최 세 희

최세희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정승아 (인)

위 원 김택호 (인)

위 원 권해수 (인)

2023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I. 서론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B. 연구문제 및 가설	8
II. 이론적 배경	9
A. 성적경고	9
1. 성적경고 개념	9
2. 성적경고의 원인 및 특성	9
3. 성적경고 극복 상담 프로그램	10
B. 멘토링 프로그램	12
1. 멘토링 개념	12
2. 성적경고 멘토링 프로그램	13
C.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15
1.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15
III. 연구 방법	17
A. 성적경고자 멘토링 프로그램	17
B. 연구 대상자	19
C. 연구 절차	20
1. 자료 수집	20
2. 연구진 구성	20

3. 전문가 타당화 검증	20
D. 자료 분석 방법	22
1. 분석 도구	22
2. 분석 절차	22
a. 자료수집 및 데이터 코딩	22
b. 데이터 분석	22
c. 핵심 키워드 추출 및 시각화	23
d. 연결망 분석	23
IV. 연구 결과	25
A. 멘토링 프로그램 이후 멘티의 학업성취도 변화	25
B.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결과	26
1. 멘티 경험	27
a. 멘티 경험 핵심 키워드 추출 및 시각화	27
b. 멘티 경험 연결망 분석	30
c. 멘티 경험 세부 내용	33
2. 멘토 경험	44
a. 멘토 경험 핵심 키워드 추출 및 시각화	44
b. 멘토 경험 연결망 분석	47
c. 멘토 경험 세부 내용	50
3. 상호작용 경험	62
a. 상호작용 경험 핵심 키워드 추출 및 시각화	62
b. 상호작용 경험 연결망 분석	65
c. 상호작용 경험 세부 내용	68

V. 논의 및 제언 94

참고문헌 102

부록 108

표 목 차

표 1. 멘토링 프로그램 회기 및 세부 내용	18
표 2.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19
표 3. 타당화 검증 분석 과정 수정 내용	21
표 4. 멘토링 프로그램 이후 멘티의 학업성취도 변화	25

그 립 목 차

그림 1. Code matrix에서 전체 구성요인	26
그림 2. Code matrix에서 멘티 경험 구성요인	28
그림 3. 멘티 경험 Code frequencies	28
그림 4. 멘티 경험 Code Cloud	29
그림 5. Code relations에서 멘티 경험 구성요인 유사성	31
그림 6. 멘티 경험 Code Map	32
그림 7. Code matrix에서 멘토 경험 구성요인	45
그림 8. 멘토 경험 Code frequencies	45
그림 9. 멘토 경험 Code Cloud	46
그림 10. Code relations에서 멘토 경험 구성요인 유사성	48
그림 11. 멘토 경험 Code Map	49
그림 11. Code matrix에서 상호작용 경험 구성요인	63
그림 12. 상호작용 경험 Code frequencies	64
그림 13. 상호작용 경험 Code Cloud	64
그림 14. Code relations에서 상호작용 경험 구성요인 유사성	66
그림 15. 상호작용 경험 Code Map	67

ABSTRACT

Analyzing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a Mentoring Program for Academic alert college students through Text Network Analysis

CHOI SE HEE

Advisor : Prof. Kweon Haesoo, Ph. D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conduct an in-depth analysis of the participation experiences of mentors and mentees who participated in academic warning mentoring through textual network analysis, with a particular focus on identifying interaction experiences, an important component of mentoring, and validating the overall participation experience of program participants. To this end, a qual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on activity reports written by mentors and mentees who participated in the academic warning mentoring program run by the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MAXQDA, a text analysis softwar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ree superordinate categories and 16 sub-components were revealed in the participation experiences of mentees. The key words that emerged from the mentees'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were "improved learning attitude," "increased self-efficacy," "pride in change," "explored the learning environment," and "tried to accept problem solutions. Second, the mentor experience revealed three superordinate categories and 17 sub-components. This study conducted a network analysis to identify the structure of the codes

derived from the mentee experience. The key words that emerged from the mentor's experience of participation were 'growing by helping the mentee', 'pace maker', 'reorganizing study habits', 'feeling proud of the mentee's change', and 'reflecting on myself', and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were identified through network analysis. Finally, for the interaction experience, 38 components were derived under five superordinate categories. The core keywords revealed in the interaction experience were "accompaniment," "steady communication," "mutual understanding," "returning to old habits," and "sharing learning methods," which were analyzed by connectivity network. In summary, mentors and mentees initially set mutual goals and used the method of checking and certifying to accomplish them, and then both mentors and mentees vowed to actively communicate and make efforts to share learning methods. In addition, as the program progressed, it was found that while the mentors tried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mentoring relationship through continuous communication, goal management, and accompaniment, they also experienced difficulties due to repeatedly falling back into old habits. However, both mentors and mentees became more actively involved in overcoming these difficulties and slowly worked together to change their behavior, and this experience had the effect of enhancing the sense of belonging and bonding between mentors and mentees. This effect was found to be an opportunity for mentors and mentees to grow and move forward together by not giving up and continuing to try and set goal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explored the overall experience of the mentoring program for academic warners and made recommendations for future program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the mentoring program for academic warners in this study, it is hoped that the intervention of the mentoring program for academic warners will be more diverse in the future.

Key word: Academic alerts, Mentoring programs, Mentor, Mentee, Text network analysis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생들에게 학업은 중요한 과업이다. 대학생의 학업성취는 단순히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측정하는 지표를 넘어서 이후 진로, 취업 등 건강한 삶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역할을 한다(권혜수, 2016). 그러나 입시 위주의 정형화된 교육을 받던 중·고등학교와 달라진 학습환경 속에서 많은 대학생은 학업성취와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단순히 대학 입시만을 위해 달려왔던 학생들이 막상 대학에 들어오고 나니 자율적인 공부 환경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학업에 흥미를 잃는 등 대학생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여러 고민과 상황이 중첩되어 학업부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학업부진이 지속되면 대학생들은 ‘성적경고’를 받게 된다. 성적경고란 대학에서 요구하는 최저 학점 기준 도달하지 못해 부여받는 것으로, 본래 그 취지는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생의 개인적,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 학업부진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이하림, 2016). 그러나 그 취지와는 달리 많은 대학생은 성적경고를 징벌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으며, 성적경고로 인한 2차적 문제들의 발생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이미경, 김희수, 2018).

해마다 대학에서 성적경고를 받는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이봉숙, 2018). 최근 대학알리미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 4년제 대학에서 중도탈락 학생은 총 148,679명으로 전체 재적 학생 중 6.6%의 학생들이 성적경고 등 다양한 이유로 중도탈락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자퇴, 미등록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탈락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 학업 변인에 의한 중도탈락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2022년 성적경고에 의한 중도탈락 학생은 2,028명으로 전체 중도탈락 학생 중 1.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20년 성적경고에 의한 중도탈락 학생이 2,667명으로 1.7%를 차지한 것과 비교할 때 성적경고로 인해 중도 탈락하는 학생의 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대학알리미, 2022).

한편, 성적경고로 인한 중도탈락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대학 기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방대학들은 저출산 문제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대학 총원을 감소 등 다양한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업저성취로 인한 중도탈락 학생 수가 더욱 증가한다면 대학의 재정적인 측면에서 큰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 대학의 재정 안정성이 위협받게 되면 대학 교육의 질 저하 및 1인당 교육비 증가와 직결됨과 동시에 교육 수요자의 불만족을 낳아 다시 소속 대학생들의 중도탈락을 높이는 악순환 구조를 반복할 가능성이 생기게 될 것이다(이은정 외, 2020).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1년도부터 성적경고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대학기본역량 평가 지표에 포함하였으며, 이에 국내 대학들은 더욱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통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차재경, 이태훈, 2019). 특히 각 대학에서는 소속 학생들의 학업 어려움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여러 학업 지원프로그램을 학내 교수학습개발센터와 학생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운영과 성과분석을 진행하고 있다(이용진 외, 2017). 국내 프로그램으로는 학습관련 컨설팅(전보라 외, 2015), 멘토링 프로그램(김나미, 김효원, 2015; 김수미, 정경은, 2013), 학습동기향상 프로그램(최주영, 김경희, 2018) 등이 있다. 이처럼 성적경고 대학생에 대한 높아진 관심에 따라 연구 동향 및 메타연구도 함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학생 학업지원 프로그램 연구 동향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 내에서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신애, 조항, 2022).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은 튜터링, 스터디그룹, 멘토링 등을 포함하는 용어로, 이 중에서도 멘토링 프로그램이 성적경고자를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많은 대학에서 유사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김옥분, 김혜진, 2018). 학업저성취자를 위한 프로그램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입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의 효과 크기를 분석했을 때 집단 학습컨설팅의 효과크기는 0.61이었으며,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이 혼합된 혼합형 학습코칭의 경우 0.07, 또래 멘토링이 0.67로 또래 멘토링의 형태로 진행된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나타냈다(임이랑, 2019). 이와 더불어 여러 연구들(강대식, 2021; 구진순 외, 2013; 김나미, 김효원, 2015; 김나미 외, 2014; 박덕희, 2017)에서 성적경고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 대학에서 성적경고자를 위해 개발한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대학에서 활용되고 있고, 그 효과성이 검증된 멘토링 프

로그래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멘토링(mentoring)이란 경험이 많은 사람인 멘토가 비교적 경험이 적은 사람인 멘티의 성장을 높이기 위해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친구, 조언자, 모범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Hunt & Michael, 1983). 멘토링 프로그램은 역할모델링과 상호작용을 통해 공통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멘토와 멘티와의 연결망을 통해 멘토-멘티의 변화와 동반 성장을 이끌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성적경고자의 특징 중 하나는 학습에 유용한 또래나 외부 지지를 만드는 기술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양명희, 2014). 멘토링 프로그램은 멘토-멘티 관계에서 1:1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써 또래 유대감 향상 및 지지자원 확보에 더욱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오현수, 2013). 또한 Sage(2010)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적경고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형태적인 측면을 살펴보았을 때 일대일의 관계에서 학습 기술 훈련이 이루어질 때 학습능력 향상에 가장 효과적이었다. 이에 성적경고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그 의의와 한계점을 통해 본 논문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멘토의 변화를 확인하거나, 멘티의 변화를 확인한 연구로 구분된다. 먼저 멘토링 프로그램이 멘티의 학업성취 및 학습 전략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진순, 고영준, 백설향, 2013; 김나미, 김효원, 2015; 박덕희, 2017). 다음으로 김나미, 김효원, 박완성(2014)의 연구에 따르면 2박 3일 집중 운영 캠프 형식 프로그램을 통해 멘티들의 자기효능감, 학습동기의 유의한 상승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 자기조절효능감과 정서적 지지가 유의하게 증가한 연구(김나미, 김효원, 2015),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 지지(구진순, 고영준, 백설향, 2013), 자아존중감과 학업 및 사회적응에 효과적임을 입증한 연구(강대식, 2021)가 있다. 또한 김옥분, 김혜진(2018)은 현상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티의 참여 경험을 심도 있게 탐구하였으며, 대학생활 적응, 자기효능감 등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토의 변화를 살펴보면 멘토링 프로그램이 멘토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지지에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구진순, 고영준, 백설향, 2013). 또한 프로그램 종료 이후 심층 인터뷰 결과 멘토들은 자신의 학습 방법에 대한 주도적 확립 기회와 성취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나미 외(2014)의 연구에서는 멘토의 자아효능감이 향상하였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에 대한 믿음과 위기극복 능력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음을 보고했다.

이상의 연구들은 성적경고자 멘토링 프로그램의 주목적이 멘티의 성적 향상에 있음에 따라 멘토링 프로그램이 성적경고를 받은 멘티의 학업 동기 및 성취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등 성적경고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 변인들의 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멘토와 멘티의 효과성을 개별적으로 각각 확인하여 멘토링의 상호작용 효과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상호작용 효과관계의 질(quality of the mentoring relationship)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멘토링 효과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김경준, 김지혜, 김영지 2013). 멘토링에서 관계의 질이란 멘토-멘티가 인식하는 관계의 만족도, 상호이익, 그리고 효과성을 의미하며(손수진, 2014; Allen & Eby, 2003), 멘토링의 형식보다는 관계의 만족도가 프로그램 효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Ragins, Cotton & Miller, 2000). 즉, 멘토링 특성상 멘토와 멘티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만큼 특정 참여자의 변화만 확인하는 것이 아닌 상호작용 속에서 어떠한 효과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실제로 김경준 외(2013)의 연구에서 청소년 멘토링을 경험한 멘토와 멘티를 대상으로 심층면접한 결과 멘토와 멘티의 욕구에 기초한 만남이 멘토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용미(2019)의 연구에서도 상호작용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학업 및 수업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멘토링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에서 측정 도구를 통해 멘토와 멘티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효과를 각각 검증하다 보니, 상호작용 효과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탐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멘토링에서 관계의 질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연구들(김나미, 김효원, 2015; 김나미, 김효원, 박완성, 2014)이 일부 존재하지만, 이조차도 멘티를 통해서만 확인하였기에 상호작용 효과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멘토와 멘티의 변화를 따로 확인하게 되면 관계의 질적인 측면은 물론 상호작용 효과를 통한 총체적인 분석을 파악하기 어렵다. 멘토와 멘티의 상호작용을 확인한다면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상호작용 촉진 요인과 더불어 협력 과정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멘티 뿐만 아니라 멘토를 통해서 멘토-멘티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이 소수에 불과하여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박덕희(2017)는 성적경고자 특성상 통제집단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에 성적 향상이 전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한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한계점으로 지적하였으며, 김나미 외(2014)는 적은 연구대상으로 인하여 변화 확인이 어렵다는 것을 한계점으로 지적하였다. 이렇듯 기존 연구들은 참여 학생 전체의 경험을 드러내기 어렵고,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기에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수의 인원을 통해 프로그램 경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터뷰에 기반한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 질적분석에서는 연구자의 의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다수의 연구(구진순, 고영준, 백설향, 2013; 김나미, 김효원, 박완성, 2014; 김나미, 김효원, 2015; 김옥분, 김혜진, 2018)에서 심층인터뷰법을 사용하여 참여자들의 경험을 파악하였으나 인터뷰 연구법을 활용할 경우 연구방법 특성상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가 인터뷰 자료에 대한 중요도를 판단하고 분석하여 의미를 부여하게 되며, 이는 인터뷰 자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텍스트의 다양한 의미를 간과하는 한계를 가질 수 있을 수 있다(이정락, 최외출, 2019).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다 객관적인 방식으로 참여 경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선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멘토-멘티의 상호작용을 살피고, 과정 경험 파악을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 과정 중에 작성된 활동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활동지 및 소감문에 쓰인 글귀들은 학생들이 직접 서술한 것으로 활동 경험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글로 작성함으로써 개인의 관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용이하다(이은진, 김수연, 2020). 또한 텍스트 형태로 서술된 내용은 사고작용 결과로 도출되는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개인의 감정이나 신념을 확인할 수 있다(Serrano J et al, 2015). 이처럼 멘토링 프로그램 활동지를 분석할 경우 활동지 내에 작성된 전략 및 목표, 느낀 점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상호작용 효과성 파악 및 프로그램 과정에서 경험한 요인들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다수의 학생 경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 대학상담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자들이 특정 학과 및 성별, 나이 등에 국한되지 않으며 많은 학생의 참여 경험 파악을 통해 더욱 다채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객관적인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활동지의 경우 텍스트 형식의 비수치적이고 구조화되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로 해당 형태

의 내용을 분석할 시 연구 분석 과정에서 자칫 활동 보고서에 대한 나열에 그칠 수 있다. 또한 정형화된 데이터에 비해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용이하지 않아 내용 분석 등 한정적인 분석기법만이 적용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Lewis et al., 2013).

종합하자면 앞서 지적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작성된 활동지를 통해 개인적 참여 경험 도출 및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할 것이며, 대학 내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체 학생들의 경험을 종합하여 더욱 다양하고 통합적인 경험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보다 객관적인 분석방법을 통해 이러한 결과의 신뢰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ext network analysis)은 텍스트의 주제와 주요 개념을 파악하고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 드러나 있는 내용과 내재된 의미를 찾아내어 현상을 분석하는 분석기법으로 자유롭게 기술한 텍스트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문미경, 2019; Popping, 2000). 이 분석은 분석 도구에 따른 분석대상 제한이 없고, 연결망 형태로 특징을 도출하며 관계성으로 체계의 특성을 설명하거나 체계를 구성하는 단위의 행위를 설명한다(김용학, 김영진, 2016). 또한 변인들의 관계를 구조적이고 시각적인 의미망으로 제시하여 구조과약을 용이하게 한다(조규락, 김찬희, 2016). 이처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비정형, 비구조화된 텍스트 데이터에 내재된 정보나 관계를 추출하여 의미 있는 정보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박은선, 권해수, 2023). 성적경고자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텍스트 내에 드러나는 표현들이 각자의 경험과 상호작용 경험과 어떠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분류하기는 쉽지 않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방법은 텍스트에 내재한 다양한 특성들을 나타내는 개념을 추출하고 텍스트 사이의 의미적 관계성을 파악함으로써 연계 개념을 추출하여 특정 사회현상에 대한 해석 또는 시사점 도출에 용이하므로(이정락 외, 2022),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경험적 내용에서 나타난 다양한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개인적 경험에서 구성요인을 도출하고, 비구조화된 자료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방법 중 시각화 분석 방법과 연결망 분석을 통해 멘토-멘티의 참여 경험과 그 사이에서 발생한 상호작용 경험을 도출하고자 한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성적경고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자의 활동 보고

서의 내용을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의 방법을 통해 멘토-멘티 관계의 상호작용 및 멘토와 멘티의 프로그램 전체 참여 경험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성적경고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시너지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성적경고자와 멘토의 경험을 통해 향후 학업 상담 및 성적경고자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B.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성적경고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토와 멘티 각각의 경험과 멘토-멘티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성적경고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성적경고 대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상담 및 프로그램의 개입 방법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적경고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티의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성적경고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토의 경험은 어떠한가?

셋째, 성적경고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토와 멘티의 상호작용 경험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A. 성적경고

1. 성적경고 개념

성적경고란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최저 학점 기준 도달하지 못해 부여받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마다 성적경고 및 학사경고로 이를 정의하고 있으며 성적경고에 대한 기준도 각기 다르다. 일반적으로 학기별 평점 평균이 1.75 미만이거나 F학점 과목이 3과목 이상인 학생을 성적경고자라 부른다. 또한 성적경고를 연속으로 받으면 수강신청 제한, 학습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의무 참여 권고를 받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제적과 같은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성적경고의 본래 목적은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학업부진을 경험하는 학생을 도움으로써 학생의 개인적 차원은 물론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다(이하림, 2016). 그러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많은 대학생이 성적경고를 징벌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2차적 문제들의 발생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이미경, 김희수, 2018). 또한 성적경고가 누적되면 제적으로 인한 중도탈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되어(Smith & Winterbottom, 1970) 대학의 재정적인 측면에 큰 손실을 발생시키고 이는 결국 대학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 악영향을 끼치는 악순환의 구조를 반복할 수 있다(이은정 외, 2020).

2. 성적경고 원인 및 특성

성적경고를 경험한 학생들의 경우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것 같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저하 및 불안감과 더불어 부모에 대한 죄책감, 걱정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이혜은, 정태욱, 2020). 이처럼 성적경고는 사회적 측면의 손실뿐만 아니라 개인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성적경고자에게 보다 적

절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업부진의 원인 및 특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적경고의 원인을 환경적 요인과 개인 내적인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환경적 요인의 경우 성적경고자는 학습에 유용한 또래나 외부 지지자원을 구축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양명희, 2014; 이용진 외, 2017), 부모의 학업수준이 낮거나 지도교수와 상담 경험 부족할 경우에도 성적경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나타났다(권혜수, 2016). 개인의 대학생활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부재하는 등 가족관계가 부정적일수록 학업부진에 영향을 미쳤으며(황매향, 2006; 이지희, 신효정, 2017),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학비를 충당함으로써 학업에 집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됐다(강순화, 2000; 노혜숙, 2019).

한편 개인 내적인 요인의 경우 대학이란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대학 내 구성원들과의 관계, 게임과 같은 요인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자기통제력 상실 등으로 비롯된 생활습관 조절의 미흡이 성적경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애경, 양지웅, 2013; 이지은, 황현우, 2018; 김소영, 윤채영, 2020). 또한 전공과 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는 등 학업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어 동기의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종두, 2016; 윤영란, 2021), 학습방법, 시간관리, 기초학습능력 부족, 시험전략 등의 효율적 학습을 위한 전략의 부진에 의해 성적경고가 발생한다(배상환, 2014; 김은영, 2015; 최경민, 2021). 다음으로는 우울, 불안, 무기력, 심리적 소진 등의 정서적 차원이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이랑, 2015; 남영옥, 이대형, 2016; 이슬이, 김은정, 2021). 이처럼 성적경고는 단순히 일차원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여러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

3. 성적경고 극복 상담 프로그램

성적경고 대학생에 대한 높아지는 관심에 따라 국내에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고 있다. 대학생의 학업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동향 연구에 따르면 처음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관련 프로그램 연구가 게재된 것은 2006년도부터 꾸준히 그 수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김신애, 조항, 2022), 차재경과 이태훈(2019)의 연구에 따르면 성적경고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2013

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나타났다. 이처럼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학업부진은 물론 성적경고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꾸준히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성적경고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학습 컨설팅, 학습동기 향상, 자기결정성 및 스트레스 대처 등 다양한 프로그램 내용을 개발하여 성적경고자의 학업성취를 위해 힘쓰고 있다.

주영아 외(2013)의 연구에서는 성적경고자들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으나 이를 대처하는 방법이 미흡하며 스스로 학습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힘인 자기결정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두 요인이 유의하게 상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전보라 외(2015)의 연구에서는 성적경고자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학업적 어려움을 개인학습컨설팅을 통해 도출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집단학습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학습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 정서 감소, 학습 전략적 측면 등이 개선되었다. 최주영과 김경희(2018)의 연구에서는 성적경고의 요인을 동기의 부족과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보았으며 학업에 대한 흥미와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 학습된 무기력을 극복하여 궁극적인 학업성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학습 동기 향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연구에서도 학습 동기의 부족을 성적경고의 원인으로 보고 학업부진으로 인한 심리적 곤란 해결 및 삶의 목표 설정을 통한 학습을 포함한 삶에 대한 전반적인 동기를 갖도록 하였다(신성만, 김정훈, 2012).

이와 같은 연구들은 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들이 얼마나 향상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제로 성적경고자의 학업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승에 효과적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실제 대학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일대일 학습공동체 형식의 멘토링 프로그램이며(김옥분, 김혜진, 2018; 김신애, 조향, 2022), 학업저성취자를 위한 프로그램 메타분석 결과 개입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의 효과 크기를 분석했을 때 집단 학습컨설팅의 효과크기는 0.61이었으며,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이 혼합된 혼합형 학습코칭의 경우 0.07, 또래 멘토링이 0.67로 또래 멘토링의 형태로 진행된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었다(임이랑,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대학생이 가장 쉽고 많이 접할 수 있으며 그 효과성이 검증된 멘토링 프로그램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B. 멘토링 프로그램

1. 멘토링 개념

멘토링(mentoring)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리스 이타가 왕국의 왕인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떠나며 자신의 아들인 텔레마커스를 보살피달라고 부탁했던 친구의 이름인 멘토인 것에서 유래되었다. 멘토는 오디세우스가 전쟁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친구, 선생님, 상담자 등의 역할을 하며 오디세우스의 아들을 훌륭하게 잘 성장시켰으며, 그 이후로 멘토라는 그의 이름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지도자로 쓰이게 된 것이다. 이렇듯 멘토는 선생 및 스승의 동의어나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나 오늘날에 들어선 멘토는 항상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

멘토링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Hunt와 Michael(1984)는 경험이 많은 사람인 멘토가 비교적 경험이 적은 사람인 멘티의 성장을 높이기 위해 일대일 관계 속에서 친구, 조언자, 모범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Murray(2006)는 숙련도가 높은 사람이 숙련도가 비교적 적은 사람의 특정 역량을 성장시키고 개발하도록 하는 합의된 목표라 하였으며, 일대일 멘토링에서 중요한 것은 멘토가 멘토링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에 대한 숙련도를 갖춘 사람이라 하였다. Smith(1998)는 멘토링이란 멘토와 멘티가 각자의 역할을 협상하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며, 목표를 정해 발전하는 도움의 관계라 하였다. 또한 멘토링은 단기적인 영향에 그치는 것이 아닌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의 인생에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관계로도 볼 수 있다(Shea, 2001). 다시 말해 멘토링이란 합의된 목표의 달성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숙련도를 지닌 사람과 비교적 적은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상호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 성적경고자 멘토링 프로그램

성적경고자 멘토링의 경우 주로 성적이 높은 고학점 학생이 멘토로, 성적경고를 받았거나 성적경고에 미치지 않았으나 학점이 낮은 학업 저성취 학생이 멘토로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대학생의 또래멘토링은 대학생활적응, 의사소통능력, 이타성능력 등에 효과적이며(양미진 외, 2018), 대학생의 다양한 어려움에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정정애, 2021). 또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멘토-멘티 관계에서 1:1로 이루어지는 활동인 만큼 성적경고자의 또래 유대감 및 지지자원 확보에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오현수, 2013). 특히 성적경고자의 경우 학습에 유용한 또래나 외부 지지자원을 구축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양명희, 2014),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성적경고자들의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대학생활적응에 효과적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적경고자를 위한 프로그램인 만큼 학생들의 성적 향상과 중도탈락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실제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3)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학업성취도 상승과 동시에 재학생의 중도탈락률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으며, 이옥화 외(2010)의 연구에서 사이버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료멘토링을 실시한 결과 학업성취도와 재등록율의 향상을 가져왔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연구에서 성적경고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구진순, 고영준, 백설향, 2013; 김나미, 김효원, 박완성, 2014; 김나미, 김효원, 2015; 박덕희, 2017; 강대식, 2021).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멘티의 변화를 확인하거나, 멘토의 변화를 확인한 연구로 구분된다. 먼저 멘티의 변화를 확인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멘티의 변화를 확인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멘토링 프로그램이 멘티의 학업성취 및 학습전략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진순, 고영준, 백설향, 2013; 김나미, 김효원, 2015; 박덕희, 2017). 강대식(2021)의 연구에서는 성적경고의 원인을 개인 내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멘토링 프로그램이 멘티의 자아존중감 및 대학생활 적응에 효과적일 것을 가정하여 8회기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멘티의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향상을 보였으며, 대학생활 적응 중 학업적응과 사회적응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김나미, 김효원, 박완성(2014)의 연구의 경우 2박 3일간 집중 캠프 형

식으로 위기극복 및 학교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자기효능감, 학습동기의 변화를 통해 유의한 향상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구진순 외(2013)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지지의 변화를 함께 확인하였으며, 김나미, 김효원(2015)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지지가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멘토의 변화를 살펴보면 구진순 외(2013)의 연구에서 ‘Anyone can achieve A+’ 라는 여름방학부터 학기 동안 매주 2시간씩 실시된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에게 멘토링 프로그램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지지에 유의한 향상이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 이후 심층 인터뷰 결과 자신의 학습 스타일을 확립하고 멘티를 통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김나미 외(2014)의 연구에서는 멘토의 자아효능감이 향상되었으며 인터뷰를 통해 자신에 대한 믿음과 위기극복 능력을 재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은 성적경고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주목적이 멘티의 성적 향상에 있음에 따라 실질적인 학업 동기 및 성취에 효과적이었으며 성적경고에 영향을 주는 개인내적인 변인의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멘토와 멘티의 효과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통합적인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탐색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으며, 성적경고라는 프로그램의 특수성에 따라 멘티 학생을 위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여 멘토가 프로그램을 통해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를 포함한 전체 경험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심층인터뷰 형식으로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파악하여 연구 결과의 객관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련의 한계점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직접 작성한 활동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C.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1.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ext network analysis)은 네트워크 이론을 기반으로 한 분석으로 단어 네트워크(Danowski, 1993),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Carley, 1997), 개념 네트워크(Popping, 2000), 단어중심 네트워크(Corman et al., 2002)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박치성, 정지원, 2013), 연구자에 따라 혼용 또는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이정락, 최외출, 2019; 이윤경, 2018). 이 중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이진명, 나종연, 2015). 본 연구에서도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의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한편,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연구가 최근 들어 사회학, 언론정보학, 행정학, 심리학 등 매우 광범위하게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이정락 외, 2022), 성적경고자의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한 분석은 전무한 실정이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과 유사한 개념인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통해 성적경고 대상 분석을 실시한 연구들이 소수 존재하나 여전히 연구 동향 파악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예다나, 고혜정, 2023; 이지영, 2023).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텍스트를 사용한 양적 분석 방법으로 네트워크 분석에 기반을 두어 의미를 밝혀내고 시각화하는 방법론을 의미한다(이정락, 최외출, 2019; Paranyushkin, 2011).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네트워크 이론을 기반으로 코딩(coding), 시각화(visualization), 군집화(clustering)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대상자의 이야기를 시각화할 수 있다(김중임, 2020). 또한 이 분석 방법은 비정형 데이터인 텍스트 중심의 대용량 자료의 구조화된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용이하다(이수상, 2017). 특히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의 주요 강점은 광범위한 텍스트에서 발췌된 핵심 주제어를 통해 잠재적이면서 실질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정락 외, 2022).

성적경고자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텍스트 내에 드러나는 표현들이 각자의 경험과 상호작용 경험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분류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참여자들

의 개인적 경험에서 구성요인을 도출하고, 비구조화된 자료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방법 중 시각화 분석과 연결망 분석을 통해 멘토-멘티의 참여 경험과 그 사이에서 발생한 상호작용 경험의 의미관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요약하자면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자의 활동지 및 소감문을 통해 전체 경험이 담긴 대량의 자료를 코딩, 시각화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멘토와 멘티의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의미와 상호작용 경험을 파악할 것이다. 이는 향후 성적경고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있어 프로그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Ⅲ. 연구 방법

A. 성적경고자 멘토링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성적경고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은 본 연구자가 소속한 G시 소재의 4년제 대학인 C대학 학생상담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성적경고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인 “피어樂(락)” 프로그램이다. 매 학기마다 C 대학의 학생통합지원시스템에서 비교과프로그램 신청 사이트를 통하여 모집 공고를 올리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2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학생상담센터에서 학과, 학년 등을 참고하여 임의로 팀을 배정한다.

멘티의 경우 성적경고를 1회 이상 경험한 학생이며, 멘토는 전체 평점 평균 3.0 이상이거나 직전 학기 평점 3.0 이상인 학생이다. 이때 성적경고자의 기준은 C대학의 학칙에 따라 매 학기 말(계절학기 제외) 평점 평균이 1.65 미만인 학생이다. 또한 멘토와 멘티 모두 재학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 종료 이후 선정자 대상 문자로 안내가 이루어진다.

프로그램 전체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 선정 이후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검사를 실시하며, 전체 오리엔테이션 이후 각 팀에 전문상담사가 배정된다. 전문상담사는 프로그램 동안 오픈 카카오톡 등을 활용하여 활동 안내 및 지속적인 관리에 힘쓴다. 프로그램은 총 5회기로 진행되며 참여자들은 회기 종료 후 사전에 안내된 양식을 기반으로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한 이내에 사이버캠퍼스를 통해 보고서를 올리게 된다. 이때 전문상담사가 제출된 활동 보고서의 내용 확인 및 피드백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 프로그램 종료 이후엔 수료식을 통해 한 학기 동안 일궈낸 성과를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진다.

성적경고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경우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활동기간에 대학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이 포함되어 학사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활동기간을 결정하며 평균 3개월가량 멘토와 멘티가 함께 활동하게 된다. 전체 프로그램 회기 및 세부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멘토링 프로그램 회기 및 세부 내용>

회기	회기 목표 및 주요 내용	멘토-멘티의 역할	멘토-멘티의 상호작용	전문 상담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LST 학습전략검사 해석을 통한 자기이해 ✓ 팀별 프로그램 목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 정보제공 및 조언제공 • [멘티] 목표 설정을 위한 자기탐색 및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검사 결과를 통한 상호 이해 -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형성 	심리 검사 해석 및 상호 역할 설정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 교수와의 상담을 통한 진로 및 학업에 대한 정보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 멘티의 지도 교수 상담 동행 • [멘티] 지도교수 상담을 위한 준비 및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지지체계를 통한 변화 동행 및 동기 강화 	모니터링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부 환경 탐색 및 비교 경험을 통한 최적의 공부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 정보제공 및 피드백 • [멘티] 조성된 환경을 통한 실천적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다른 환경에 대한 이해 - 학습환경 공유를 통한 대리학습 	모니터링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 및 제도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 정보제공 및 피드백 • [멘티] 대학에 대한 이해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공유를 통한 도움 제공 및 도움 - 상호도움 및 전략 형성 촉진 	모니터링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목표 달성 여부 점검 및 추후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 격려 및 지지 • [멘티] 개인적 실천 및 다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지지 및 동기 강화 - 상호성장 및 깨달음 	성과 확인 및 미해결 과제 확인

B.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G광역시 소재 4년제 대학인 C대학에서 운영되는 성적경고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인 “피어樂(락)”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다. 2022년 1학기, 2022년 2학기, 2023년 1학기에 프로그램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수집 및 활용에 동의를 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연구 자료수집 및 활용에 동의한 학생은 2022년 1학기 29팀, 2022년 2학기 22팀, 2023년 1학기 35팀으로 총 86팀으로 합계 172명이다. 본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학생 수(%)

구분		멘티(N=86)	멘토(N=86)
성별	남성	50(59.1)	40(46.5)
	여성	36(41.9)	46(53.5)
학년	1학년	7(8.1)	4(4.7)
	2학년	36(41.9)	20(23.3)
	3학년	29(33.7)	36(41.9)
	4학년	14(16.3)	26(30.2)
단과대학	경상대학	19(22.1)	12(14.0)
	공과대학	27(31.4)	26(30.2)
	인문대학	9(10.5)	8(9.3)
	미술체육대학	7(8.1)	6(7.0)
	법사회대학	5(5.8)	5(5.8)
	사범대학	3(3.5)	4(4.7)
	의과대학	0(0.0)	4(4.7)
	자연대학	2(2.3)	7(8.1)
	IT대학	14(16.3)	14(16.3)

C. 연구 절차

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수집되는 자료는 연구자가 소속한 C대학의 학생상담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적경고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활동 보고서 자료이며, 학생상담센터로부터 자료수집에 관한 동의를 구한 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는 연구 윤리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참여 학생들에게 참여자들에게 설명문과 정보제공 및 자료 활용 동의 여부에 대해 구글 온라인 폼을 활용해 각 참여자가 각 참여자가 제출한 활동보고서 자료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동의서의 내용에는 자료수집의 목적, 동의하지 않을 자유와 권리, 개인정보의 비밀 보장, 수집 내용, 민감 정보 미수집, 수집된 자료의 보관과 폐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었다. 또한 추후 자료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시 즉시 자료를 폐기할 것을 안내하였으며,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들의 자료는 일절 수집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였다.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는 2023년 8월 29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자료 활용에 동의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2023년 9월 11일부터 2023년 9월 18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연구진 구성

본 연구는 질적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질적분석 경험이 있는 지도교수와 상담심리 박사 수료자이자 C대학의 학생상담센터 전임상담원, 석사과정 중이며 학생상담센터 인턴상담원인 연구자 본인 총 3인으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3. 전문가 타당화 검증

본 연구에서는 분석 과정과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으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경험이 있는 교육학 박사 1인, 질적분석 경험이

풍부하고 MAXQDA Professional Trainer인 심리학 박사 1인으로부터 자료 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을 받고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표 3> 타당화 검증 분석 과정 수정 내용

수정 전 내용	피드백 내용	피드백을 통한 수정 내용
-코드 빈도에 따라 상호 작용, 멘티, 멘토 경험의 순으로 결과를 제시함	-프로그램 전체 흐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멘티, 멘토, 상호작용 경험 순으로 결과를 제시하여 분석 결과와 일관성을 유지함
-연구자의 관찰자 시점으로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진술함	-연구자의 주관적인 시점을 배제하는 것이 좋음. -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위해 활동 보고서 내용을 온전히 제시할 것	-분석 프로그램의 기능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의 작성 내용을 제시하고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여 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유지함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방법에서 빈도분석, 시각화 방법을 통해 연구 결과를 도출함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방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추가할 것	-연결망 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를 추가 제시하여 코드 간 구조적인 관계를 제시함

D. 자료 분석 방법

1. 분석 도구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위하여 텍스트 분석 프로그램인 MAXQDA 2022(ver. 22.7.0; VERBI software, Berlin, Germany)를 사용하였다. MAXQDA의 경우 질적 자료분석(Qualitative Data Analysis: QDA)에 유용한 소프트웨어 중 하나로 수집한 대량의 텍스트 자료를 체계적으로 색인화하고 코딩에 용이하다. 또한 MAXQDA는 개별 파일에 대한 신속한 접근을 통해 텍스트의 동시 관리가 가능하여 활동 보고서 및 소감문을 분석하는데 용이하며, 연구진이 직접 텍스트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텍스트에 관련된 메모 및 의미 있는 단어나 문장에 코딩을 입력하고 수정할 수 있어 코드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다.

2. 분석 절차

a. 자료수집 및 데이터 코딩

먼저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회기별로 작성한 활동지 및 소감문 내용을 수집했다. 수집된 자료들은 분석의 용이성을 위하여 전체 pdf 파일로 전환하였으며, 분석 용도에 맞게 2022년 1학기, 2022년 2학기, 2023년 1학기로 구분하여 저장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의 익명성 보호 및 원활한 분석을 위하여 각 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다. 전사된 자료는 연구진이 반복적으로 읽어보며 중복 자료 및 분석에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었거나 불성실하게 작성된 문서의 경우 모두 삭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총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총 451개의 pdf 파일로 A4 1,432장의 분량이다.

b. 데이터 분석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전통적인 양적 내용분석과 달리 사전에 범주를 선정하고 그 범주에 따라 텍스트를 구분하여 코딩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박치성, 이

준석, 2017). 이에 연구참여자의 텍스트 자료를 전사하여 MAXQDA 상에서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며 메모의 기능을 활용해 연구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였으며, 특히 멘토와 멘티의 상호작용에 대한 경험과 멘토, 멘티 각각의 참여 경험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였다.

다음으로는 MAXQDA의 코딩 기능을 활용하여 개방형 코딩을 통해 멘토와 멘티의 참여 경험을 분석하였다. 개방 코딩이란 원자료를 대상으로 단어, 문장, 문단 단위의 분석을 통해 특정 개념과 하위범주, 상위범주를 생성하고 개념적 관계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동성, 김영천, 2012). 이를 위해 참여자들이 작성한 활동지에서 텍스트 내용을 대변하는 의미 단위를 찾아내어 유사한 의미 단위들을 묶어 단어나 주제로 코딩하였다. 또한 코딩 결과의 객관성을 위해 연구진이 비교 분석하며 토론을 통해 코딩 결과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수행하여 코드 체계(Code System)를 완성하였으며, 구성요인을 도출했다.

c. 핵심 키워드 추출 및 시각화

본 연구는 성적경고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토와 멘티 학생들 각각의 경험과 더불어 그들의 상호작용 경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멘토와 멘티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점으로 파악하고 멘토, 멘티 각각의 참여 경험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핵심 키워드를 어떻게 추출하는지에 따라 연구 결과의 전체적인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위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코드시스템(Code system)에서 코딩한 하위코드를 살펴보았으며, 코드의 전체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코드 매트릭스 브라우저(Code matrix Browser)를 통해 코드가 코딩된 구절(Segments with Code)의 빈도수를 계산하고, symbol size로 시각화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코드 클라우드(Code Cloud)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서 드러난 표현을 시각화하여 핵심 키워드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d. 연결망 분석

성적경고자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서 도출된 구성요인의 관계 구조를 파악하여 도출된 경험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연결망 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코드의 근접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코드관계 브라우저(Code Relations Browser)를 통해 동일한 문서에 있는 코드의 근접성(Proximity of codes in a segment)을 확인했다. 이는 최대 1단락 이내에 두 코드가 구절에 함께 코딩된 횟수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연결망 형태를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코드맵(Code Map)으로 확인하였다. 코드맵에서 두 코드 사이의 거리는 데이터 내 유사성을 의미하며 지도에서 더 가깝게 표시된다. 또한 코드 간 연결선은 동시출현빈도를 의미하며, 연결선이 두껍게 표시될수록 두 코드 사이에 동시성이 더 많음을 의미한다(서형준, 2021).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에선 하나의 키워드가 동시출현 빈도가 높을수록 연결강도가 큰 것으로 간주하며, 즉 연결정도가 높은 코드가 많은 코드와 함께 사용되는 영향력 있는 코드이다(이정락 외, 2022).

IV. 연구 결과

A. 멘토링 프로그램 이후 멘티의 학업성취도 변화

프로그램 이후 성적경고자의 학업성취 및 성적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다. 22년도 1학기 프로그램 참여자 전체 성적 평점이 평균 1.09점 향상하였으며, 22년도 2학기의 경우 0.68점, 24년도 1학기의 경우 0.76점 향상하여 전체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성적이 평균 0.84점 향상했다. 성적경고 탈출 인원은 2022년 1학기 27명, 2022년 2학기 21명, 2023년 1학기 34명으로 전체 인원 중 95.3%가 성적경고에서 탈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멘티 학업성취도 변화

구분		사전 성적 (평균)	사후 성적 (평균)	성적경고 탈출 인원(명)	성적경고 유지 인원(명)
참여 학기	22년도 1학기 (29명)	1.48	2.57	27	2
	22년도 2학기 (22명)	2.21	2.89	21	1
	23년도 1학기 (35명)	2.33	2.99	34	1

B.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들로부터 수집한 활동지와 소감문 질적 자료를 코드 체계로 분석하여 구성요인을 도출했다. 상호작용, 멘토 경험, 멘티 경험에 따라 수차례 코드를 지정한 결과 전체 코드 수는 2,352개로 나타났으며,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Code System	2022_1학기	2022_2학기	2023_1학기	SUM	
<ul style="list-style-type: n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참여 동기 프로그램 참여 경험 프로그램 참여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참여 동기 프로그램 참여 경험 프로그램 참여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멘토링 초기 구조화 초기 협력관계 멘토 멘티 긴장과 대립 멘토링 관계의 질 향상 노력 탄탄한 협력관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38 173 2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28 249 1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9 266 142 545 3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9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5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8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52

<그림 1> Code matrix에서 전체 구성요인

1. 멘티 경험

a. 멘티 경험 핵심 키워드 추출 및 시각화

본 연구의 성적경고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멘티 경험 분석 결과 458개의 코드가 코딩되었으며, 코딩한 결과는 <그림 2>에 제시했다.

코드시스템(Code system)에서 구조를 살펴보면 가장 빈도수가 높은 상위코드(parent code)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 효과(53.9%)’, ‘프로그램 참여 경험(37.8%)’, ‘프로그램 참여 동기(8.3%)’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프로그램 참여 효과(53.9%)’의 경우 7개의 하위코드 중 ‘학습태도 개선(28.7%)’이 가장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자기효능감 증진(24.3%)’, ‘변화에 따른 뿌듯함(15.4%)’ ‘대학생활 적응 증진(10.1%)’, ‘긍정적 생활습관 형성(9.7%)’, ‘진로효능감 증진(8.5%)’, ‘정서적 안정(3.2%)’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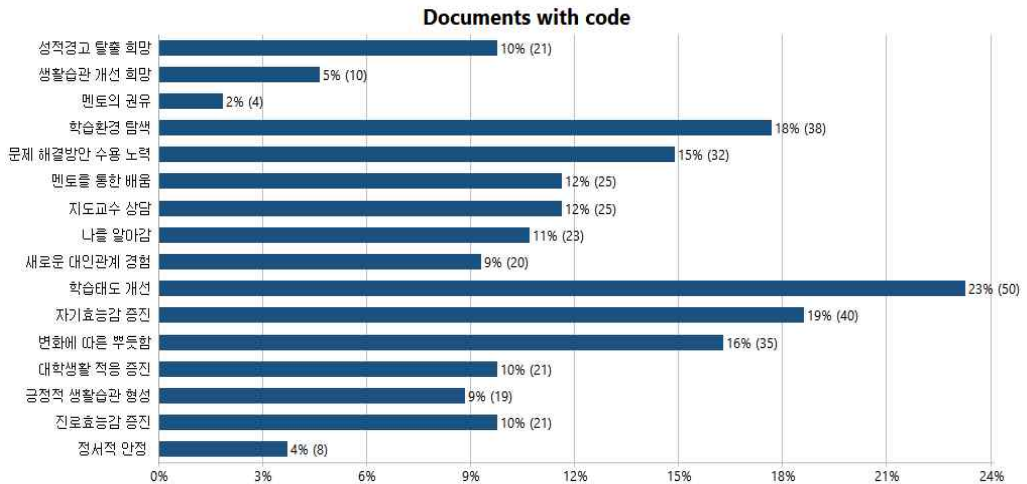
다음으로 ‘프로그램 참여 경험(37.8%)’에서 6개의 하위코드가 드러났으며 가장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 하위코드는 ‘학습환경 탐색(22.5%)’ 다음으로 ‘문제 해결방안 수용 노력(20.2%)’, ‘멘토를 통한 배움(15.6%)’, ‘지도교수 상담(15.0%)’, ‘나를 알아감(13.9%)’, ‘새로운 대인관계 경험(12.7%)’이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참여 동기(8.3%)’에서 드러난 3개의 하위코드는 그 빈도수에 따라 ‘성적경고 탈출 희망(57.9%)’, ‘생활습관 개선 희망(31.6%)’, ‘멘토의 권유(10.5%)’로 나타났다.

전체 문서에서 멘티 경험이 코딩된 코드 구절 빈도를 계산한 결과 <그림 3>에 제시하였으며, 멘티 경험 하위 구성요인 16개 중 코딩 구절 10% 이상에 해당하는 핵심 키워드 5가지는 ‘학습태도 개선(23.4%)’, ‘자기효능감 증진(18.7%)’, ‘학습환경 탐색(17.8%)’, ‘변화에 따른 뿌듯함(16.4%)’, ‘문제 해결방안 수용 노력(15.0%)’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코드 클라우드(Code Cloud)를 통해 시각화한 결과를 <그림 4>에 제시했다.

Code System	2022_1학기	2022_2학기	2023_1학기	SUM
멘티 경험				0
프로그램 참여 동기				0
성적경고 탈출 희망	■	■	■	22
생활습관 개선 희망	■	■	■	12
멘토의 권유		■	■	4
프로그램 참여 경험				0
학습환경 탐색	■	■	■	39
문제 해결방안 수용 노력	■	■	■	35
멘토를 통한 배움	■	■	■	26
지도교수 상담	■	■	■	27
나를 알아감	■	■	■	24
새로운 대인관계 경험	■	■	■	22
프로그램 참여 효과				0
학습태도 개선	■	■	■	71
자기효능감 증진	■	■	■	60
변화에 따른 뿌듯함	■	■	■	38
대학생활 적응 증진	■	■	■	25
긍정적 생활습관 형성	■	■	■	24
진로효능감 증진	■	■	■	21
정서적 안정	■	■	■	8
Σ SUM	159	112	187	458

<그림 2> Code matrix에서 멘티 경험 구성요인



<그림 3> 멘티 경험 Code frequenc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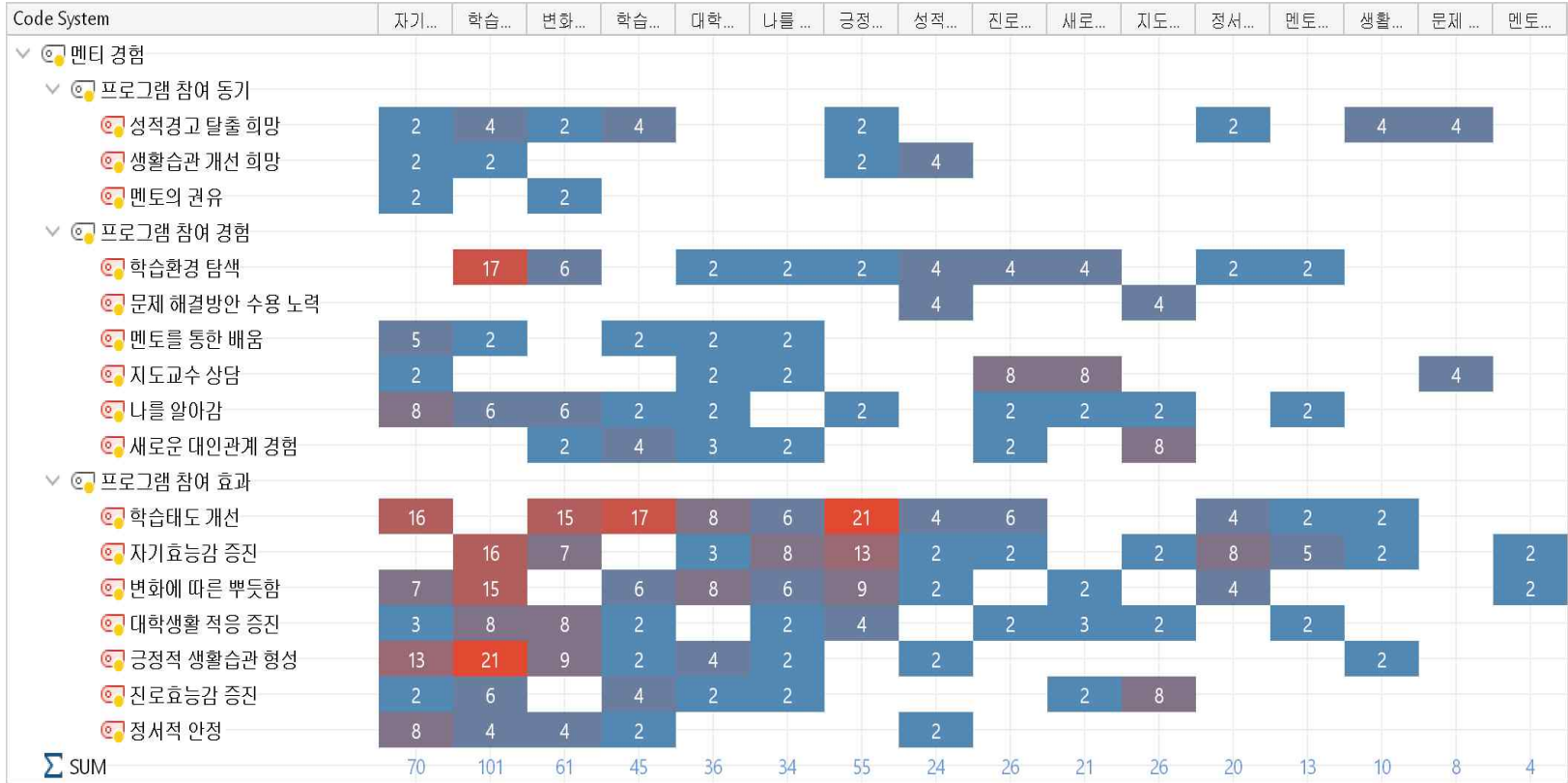
<그림 4> 멘티 경험 Code Cloud

b. 멘티 경험 연결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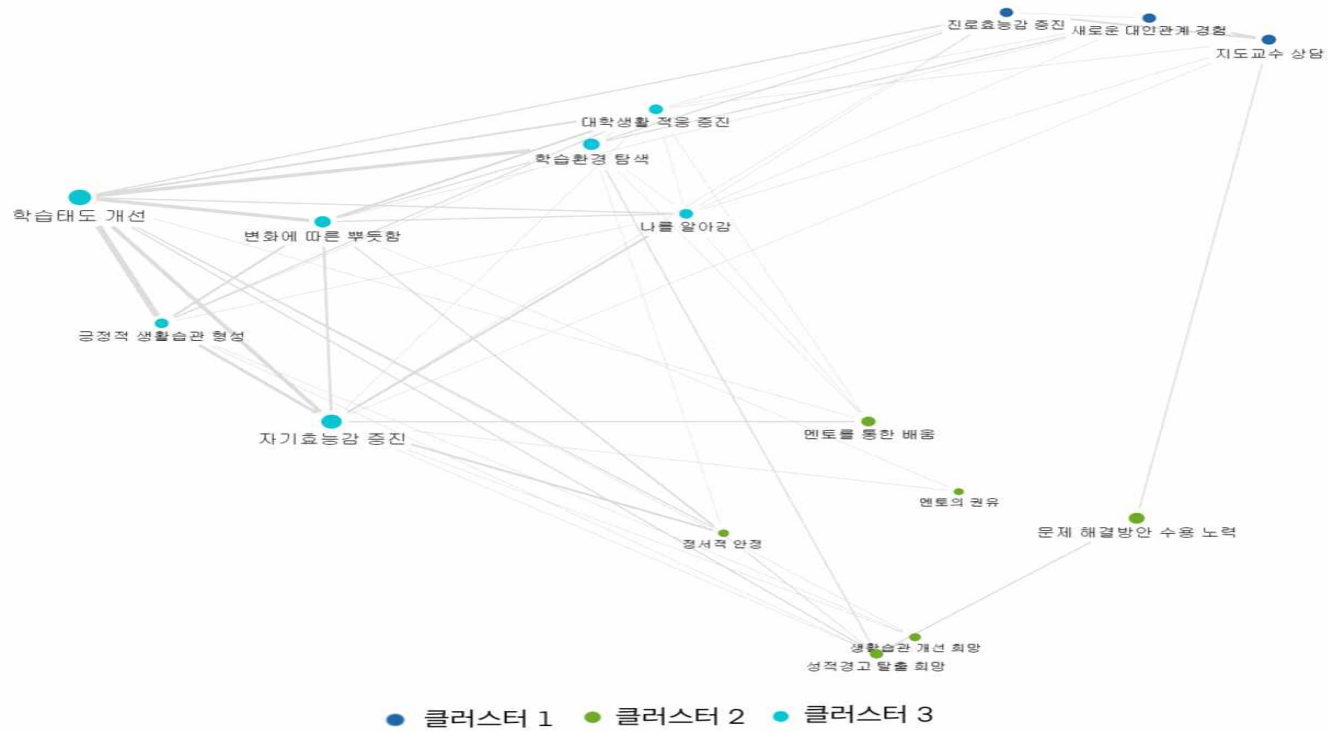
코드 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코드관계 브라우저(Code Relations Brower)를 실시하여 <그림 5>에 제시하였으며, 이는 패턴의 유사성 및 빈도 합계를 기준으로 정렬하여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다른 코드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코드는 ‘자기효능감 증진’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학습태도 개선’, ‘변화에 따른 뿌듯함’ 등이 있다.

다음으로 코드 간 관련성을 시각적인 연결망 형태로 파악하기 위해 코드맵을 실시한 결과를 <그림 6>에 제시하였다. 코드맵을 실시하여 맵 위치에 따른 코드의 색상을 지정한 결과 총 3개의 클러스터가 도출되었다. 각 클러스터마다 유사성이 가장 높은 상위코드 3개를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클러스터 1]에서 총 3개의 하위코드가 클러스터에 포함되었으며, ‘새로운 대인관계 경험’, ‘지도교수 상담’, ‘진료효능감 증진’ 순으로 다른 코드와 데이터 내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클러스터 2]의 경우 6개의 코드가 위치 해 있으며, ‘성적경고 탈출 희망’, ‘생활습관 개선 희망’, ‘문제해결 수용 노력’이 해당 클러스터 내에서 다른 코드와 가장 유사성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 3]의 경우 총 7개의 하위코드가 포함되었으며, [클러스터 3] 내에서 유사성이 가장 높은 코드 3가지는 ‘긍정적 생활습관 형성’, ‘대학생활 적응 증진’, ‘변화에 따른 뿌듯함’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코드맵을 통해 멘티의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서 도출된 핵심 키워드를 구조적으로 파악한 결과 ‘학습태도 개선’과 ‘자기효능감 증진’, ‘학습환경 탐색’, ‘변화에 따른 뿌듯함’은 모두 동일 클러스터에 위치하며, 서로 연결선이 모두 활성화되어 코드 간 동시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가장 높은 코드 빈도를 보인 ‘학습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결과 ‘긍정적 생활습관 개선’과 가장 동시성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른 핵심 키워드와 동일 클러스터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 해결방안 수용 노력’의 경우 ‘성적경고 탈출 희망’과 가장 동시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멘토의 권유’와 가장 근거리에 있다.



<그림 5> Code relations에서 멘티 경험 구성요인 유사성



<그림 6> 멘티 경험 Code Map

c. 멘티 경험 세부 내용

성적경고자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티의 생생한 경험 도출을 위해 MAXQDA의 인비보(in-vivo) 코딩 기능을 통해 멘티들이 활동 보고서에 작성한 문장을 그대로 코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 참여 동기

코딩 결과 멘티가 성적경고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유는 ‘성적경고 탈출 희망’, ‘생활습관 개선 희망’, ‘멘토의 권유, 세 가지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적경고 탈출 희망

멘티들은 성적경고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목적에 맞게 근본적으로 성적경고로부터 탈출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사실 작년에 학사경고를 맞았었다. 그래서 이번 피어락 활동이 성적경고 이력을 삭제해 준다고 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다.” (멘토링 9팀 멘티, 5회기 보고서)

“처음에는 3.0만 넘자, 학사경고 기록을 지우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피어락 활동이었다.” (멘토링 17팀 멘티, 5회기 보고서)

“나는 처음에 피어락 활동으로 성적경고 기록을 없애고 싶어서 시작했다.” (멘토링 37팀 멘티, 5회기 보고서)

2) 생활습관 개선 희망

멘티들은 자신의 무너진 생활습관을 개선하고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늘어난 체중, 무기력함 등과 같이 각자의 이유에 따라 학교생활을 챙기지 못한 것을 극복하

고자 했다.

“나는 코로나 19 시국 이후 급격하게 체중이 늘어 건강이 매우 나빠졌었다. 몸이 무거워지니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시간이 줄어들고 방 안에 누워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통에 정신적으로 점점 매사에 무기력해지는 느낌을 받았고 이로 인한 정신적인 건강도 전보다 매우 나빠지는 등의 악순환에 빠져 있었다. (중략) 평소 생활을 정상적으로 되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았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로 피어락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이번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멘토링 18팀 멘티, 5회기 보고서)

“이번 피어락 활동을 하기 전 나의 학교생활은 한 마디로 ‘무계획’이었다. 아무런 계획과 목표 없이 마냥 학교를 다녔다. 그렇게 나는 계획과 목표가 없으니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가고 싶을 때 가고 학교를 자주 빠졌었다. 학교를 안 나가니 덩으로 공부도 안 하게 되어 성적도 엉망이 되었다. 결석을 너무 많이 해 F학점을 받은 수업도 많았다. 나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제대로 학교를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다닐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몰랐고 그리하여 이번 피어락 프로그램에 신청하게 되었다.” (멘토링 36팀 멘티, 5회기 보고서)

3) 멘토의 권유

멘티들이 성적경고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는 멘토의 권유가 있다. 멘티들은 멘토의 추천 및 권유를 통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인식하고 고민 끝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 피어락 프로그램도 처음 멘토가 추천해 주었을 때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성적을 올려야겠다는 생각과 멘토의 설득으로 인해 참여했다.” (멘토링 1팀 멘티, 4회기 보고서)

“19년도에 휴학한 후, 이런저런 일을 하다 22년 2학기에 복학하게 되었다. 막상 복학을 하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아 속으

로 끄끙 앓고 있었다. 그때 고등학교 친구였던 멘토가 혹시 피어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같이 해보는 것이 어떨겠냐고 제안했다.” (멘토링 25팀 멘티, 5회기 보고서)

(2) 프로그램 참여 경험

성적경고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티의 참여 경험은 총 6가지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세부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학습환경 탐색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멘티들은 자신에게 적절한 학습환경을 탐색하는 경험을 했다. 각 장소의 장단점 비교와 평소 자신의 공부 습관을 토대로 알맞은 학습환경을 알아가고자 했다.

“나는 평소에 공부를 집에서만 했었다. 하지만 집에서 했을 때 주변에 놓여진 핸드폰과, 책상 바로 옆에 있는 침대 때문에 집중력이 얼마 가지 못하고, 공부를 매우 조금 한 후에 포기했었다. 그러나 3회기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카페, 학교 도서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해본 결과, 3군데 모두 집중을 잘할 수 있었다.” (멘토링 15팀 멘티, 5회기 보고서)

“저는 평소에 그냥 집이 가장 편하기도 해서 매일 집에서만 시험공부나 과제를 하고는 그랬는데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하다보니 오히려 사람 많은 곳이 경쟁심? 이라 해야 하나 집중력이 더 생기게 되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된 곳도 있고, 사람이 없거나 노래 소리에 집중이 안 되게 되어 많이 힘든 곳도 있었습니다.” (멘토링 27팀 멘티, 3회기 보고서)

“공부를 하는 장소가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도서관 열람실에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집중이 잘 된다고 느꼈으나 현재는 열람실 이용이 불가해 공부 집중이 잘 되는 장소를 다시 탐색 중이다.” (멘토링 39팀 멘티, 3회기 보고서)

2) 문제 해결방안 수용 노력

멘티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방안을 수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는 것을 경험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스스로 보완하고자 하기도 하고, 멘토의 조언을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변화하고자 했다.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멘토와 상의 후 조언에 따르며,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멘토링 3팀 멘티, 1회기 보고서)

“나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파악하게 되었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멘토리 30팀 멘티, 2회기 보고서)

“멘토의 의견과 조언을 받아들이고 서로 꾸준한 의사소통을 통해 학습방향성과 방법을 설정한다. 멘티인 나는 멘토의 의견을 존중하고 실천해야 한다.” (멘토링 40팀 멘티, 1회기 보고서)

3) 멘토를 통한 배움

멘티들은 멘토와 자신의 차이점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멘토 본연의 모습에서 본받을 점을 발견했다. 또한 멘토의 도움을 기반으로 스스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고 깨닫는 등의 경험을 했다.

“어떻게 무엇부터 공부 해나가야 할지 모르곤했던 과거와 달리, 멘토의 도움으로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해 나아가니 막연했던 목표가 확실하게 보여졌다. 이대로 쪽 나아가간다면 큰 도약이 될 듯싶다.” (멘토링 25팀 멘티, 2회기 보고서)

“후배가 멘토여서 재밌는 상황들이 많았다. 후배는 일단 성적이 매우 우수했으며,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었다.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때는 공부에 집중하며, 무엇이든지 때를 알고 행동했다. 이런 부분을 많이 배우게 되었다.” (멘토링 78팀 멘티, 5회기 보고서)

“멘토인 00이는 성적이 정말 좋는데 나와서 차이점을 생각해 보니 공부를 하겠다고 결심하면 그 과목을 끝낼 때까지 포기를 안 한다는 점이였다.” (멘토링 79팀 멘티, 5회기 보고서)

4) 지도교수 상담

멘티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지도교수와 상담을 경험했다. 지도교수 상담을 통해 정서적 안정, 고민해결 등을 경험하며 상담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고 접근성이 쉬워진 것을 느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시험이 끝나고부터 하루에 할 만큼의 분량을 정해서 매일매일 공부하고, 모르는 것은 그때그때 교수실로 찾아가서 확실하게 습득해야겠다.” (멘토링 14팀 멘티, 2회기 보고서)

“교수님의 진심어린 답변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고 마음에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서 보람차고 개운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멘토링 38팀 멘티, 2회기 보고서)

“성적경고라는 말을 꺼내기 무서워 미루던 상담이었는데, 따끔한 조언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적 증진에 대한 솔루션과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많은 자신감을 얻었다.” (멘토링 82팀 멘티, 5회기 보고서)

5) 나를 알아감

프로그램을 통해 멘티들은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경험을 했다. 단순히 자신에 대한 성찰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목표 설정부터 시작하여 5회기가 진행되는 사이에 존재한 여러 활동들을 통해 정서, 인지, 행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피어락 활동을 끝마치면서 1회기 때 설정했던 현행시축 활동, 그리고 공부환경 조성과 대학목표 등을 설정하면서 나에 대해 많이 알아갔던 시간이었다.” (멘토링 66팀 멘티, 5회기 보고서)

“학습전략검사를 통해 상담선생님과 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에게 맞춤형 해결 방법을 찾은 것이 인상 깊었다. 평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기도 했다.” (멘토링 68팀 멘티, 5회기 보고서)

“부정적인 감정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잊으려고만 했던 방식보다 나를 직면하여 내 자신이 어느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때 나타나는 감정들은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었다.” (멘토링 78팀 멘티, 5회기 보고서)

6) 새로운 대인관계 경험

멘티들은 지도교수, 멘토 등을 통해 새로운 대인관계를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지도교수와 상담을 처음 경험한 것이 인상 깊었다는 진술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는데, 평소 지도교수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던 멘티들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멘토형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 가며 대학이란 게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더 값진 게 많다는 것을 알았다.” (멘토링 42팀 멘티, 5회기 보고서)

“교수님과 따로 만나서 상담하는 건 처음인데, 항상 수업으로만 뵈던 교수님을 일대일로 마주하여 상담하니 새로웠다.” (멘토링 54팀 멘티, 2회기 보고서)

“교내 프로그램을 처음 참여해 보는 것에 가장 큰 의의가 있고 또 낮을 가리는 성격임에도 용기를 내어 피어락에 참여해 멘토 친구를 사귄 수 있었다.” (멘토링 64팀 멘티, 5회기 보고서)

(3) 프로그램 참여 효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멘티에게 ‘정서적 안정’, ‘학습태도 개선’, ‘긍정적 생활 습관 형성’ 등 7가지의 참여 효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학습태도 개선

멘티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꾸준히 수업에 출석하고, 공부 시간이 늘어나고, 학업능력이 증진하는 등 궁극적으로 학습태도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이후 성적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등 학업에 대한 관심이 증진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성적이 기대가 된다. 지난 년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이번 학기에는 성적이 못 나오면 많이 아쉬울 거 같다.” (멘토링 14팀 멘티, 5회기 보고서)

“처음에는 부족했지만, 점차 꾸준히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처럼 공부할 장소가 없다는 핑계를 하지 않도록 학교 캠퍼스와 학교 주변의 공부할 수 있는 많은 장소 또한 알게 되었으며 매 학기에 있는 주로 F를 맞았던 과목의 테스트를 전보다 많이 풀 수 있게 된 것 같다.” (멘토링 55팀 멘티, 5회기 보고서)

“평소 시험 기간에만 몰아서 하던 공부를 3일에 한 번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공부하는 횟수를 늘려 지금은 이틀에 한 번은 꼭 하게 되어 공부습관 개선에 매우 도움 되었다.” (멘토링 73팀 멘티, 5회기 보고서)

“귀찮았던 강의들과 안 가는 게 당연했던 학교 대면 수업들은 현재 지각 한번 없이 모두 출석했다.” (멘토링 79팀 멘티, 5회기 보고서)

2) 자기효능감 증진

멘티들은 성적경고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나가며 자신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서 스스로 통제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신념이 형성되고, 멘티에서 멘토로 역할 전환을 희망하는 등 자기효능감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었다.

“예전의 나였더라면 과제가 나와도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도움을 받고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그냥 넘어갔었지만 이젠 스스로 자료를 조사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멘토링 8팀 멘티, 5회기 보고서)

“멘티가 아닌 멘토가 되어 이러한 활동을 통한 나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멘티에게 전하고 싶다.” (멘토링 65팀 멘티, 5회기 보고서)

“성적이 어떻게 나오든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학기에도 좋은 공부습관과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거 같다.” (멘토링 70팀 멘티, 5회기 보고서)

3) 변화에 따른 뿌듯함

멘티들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자신의 변화하는 모습에 따라 목표 달성을 통한 성취감을 느끼고 뿌듯한 감정을 느꼈다.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더라도 과정에서 노력하는 모습에 스스로 만족하기도 했으며, 끝까지 해낸 자신의 모습에 자신감을 얻었다.

“성적경고를 받은 학기와 비교하면 이번 학기는 정말 열심히 보내게 되었다. 스스로도 뿌듯하고 멘토도 뿌듯해해서 앞으로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 일을 성실히 할 것으로 생각한다.” (멘토링 29팀 멘티, 5회기 보고서)

“멘토와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약속한 것들을 모두 지키진 못했지만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뿌듯함도 느끼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경험이 매우 크게 도움이 되어 간다는 것이 와닿았다.” (멘토링 51팀 멘티, 5회기 보고서)

기 보고서)

“1교시 강의의 출석 관리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든 꾸준히 지각하지 않고 출석한 결과를 보거나, 지금까지 조금씩 필기해 모은 필기 노트를 보며 뿌듯함과 성취감이 들기도 했다.” (멘토링 81팀 멘티, 5회기 보고서)

4) 대학생활 적응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멘티들은 대학에 대한 애착과 만족도가 향상하며 대학생활 적응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세운 목표를 향후 대학생활에서도 적용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등 목표에 대한 몰입을 보여주었다.

“나는 진로 방향이나 공부 방향을 잡지 못해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활동을 통해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학교생활이 너무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뀐 것 같다.” (멘토링 27팀 멘티, 5회기 보고서)

“공부는 아직도 잘하지 못하지만, 전보다 학교생활이 즐겁습니다. (멘토링 42팀 멘티, 5회기 보고서)”

“다음 학기를 위한 계획도 세워보았기에 다음 학기도 성실하게 이번 활동 마무리를 하면서 세운 계획을 지키면서 학교생활을 해보도록 노력할 것이다.” (멘토링 43팀 멘티, 5회기 보고서)

5) 긍정적 생활습관 형성

멘티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휴대폰 사용 시간이 줄고, 방을 정돈하고, 음주 횟수가 줄어드는 등 일상 속 긍정적인 습관이 생겨 긍정적인 생활 습관이 형성되는 효과가 있었다.

“일찍 일어나도 침대에서 핸드폰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잠드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오전의 루틴이 생겨서 바로 샤워를 하고 늦게 일어나서 항상 먹지 못하던 아침 식사를 하는 등으로 아침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멘토링 3팀 멘티, 5회기 보고서)

“1차원적인 쾌락과 (음주, 잠) 멀어지게 되니 이전보다 정신이 맑아진 느낌이 들었으며 항상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여 생활습관까지 개선됐다.” (멘토링 40팀 멘티, 5회기 보고서)

“공부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더러웠던 자취방은 매일매일 청소하여 정돈된 방이 되었다.” (멘토링 79팀 멘티, 5회기 보고서)

6) 진로효능감 증진

멘티들은 전공 및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진로 관련 고민이 해결됨으로써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뚜렷한 확신을 얻는 등 진로효능감이 증진되었다.

“군대 가기 전 어떠한 일들을 하며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무조건 학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닌, 영어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멘토링 55팀 멘티, 2회기 보고서)

“처음에는 경제 시사에 대하여 공부하려고 하였지만 3학년인 지금 나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해소되지 않았다. 그래서 멘토와 함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고 같이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로 인하여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해야 좋을지 나의 진로에 도움이 되었다.” (멘토링 65팀 멘티, 5회기 보고서)

“전공 공부를 심도 있게 하고 싶어서 부전공을 신청하여 해당 과목을 수강하고 있지만 본 학과가 아니다 보니 전공과목의 어려움이나 진로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얻을 수 없어 답답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러한 부분이 많이 해결되었고 앞으로의 진로 설정이 확실해졌다.” (멘토링 66팀 멘티, 2회기 보고서)

7) 정서적 안정

멘티들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늘 멘토와 함께했다. 이렇듯 혼자가 아닌 둘이서 같이하는 경험을 통해 안심이 됐으며, 걱정이 해소되는 등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목표를 달성해 나가며 그에 따른 안정감이 형성되었다.

“그냥 허허벌판에 혼자 외로이 서있는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좀 안심이 되기도 했고 의지가 오르긴 했다.” (멘토링 12팀 멘티, 5회기 보고서)

“이번에 군복학을 하고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 걱정도 많았는데, 이도 많이 해소가 되었다.” (멘토링 15팀 멘티, 5회기 보고서)

“자습이나 과제 같은 것도 바로 바로 해두니까 시험 기간일 때도 마음 졸이지 않고 여유롭게 시험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멘토링 27팀 멘티, 5회기 보고서)

2. 멘토 경험

a. 멘토 경험 핵심 키워드 추출 및 시각화

본 연구의 성적경고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멘토 경험을 분석한 결과 411개의 코드가 코딩되었으며, 코딩한 결과는 <그림 7>에 제시했다.

코드시스템(Code system)에서 구조를 살펴보면 가장 빈도수가 높은 상위코드(parent code)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 경험(60.6%)’, ‘프로그램 참여 효과(32.6%)’, ‘프로그램 참여 동기(6.8%)’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장 빈도수가 높았던 ‘프로그램 참여 경험(60.6%)’에서 7개의 하위코드가 나타났으며, 그중에서 ‘페이스 메이커(23.7%)’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멘티를 도우며 성장(22.5%)’, ‘멘티의 변화에 따른 뿌듯함(16.9%)’, ‘나를 되돌아봄(13.3%)’, ‘멘티의 열정에 자극(10.4%)’, ‘멘티 지도교수 상담(8.4%)’, ‘멘티에게 배움(4.8%)’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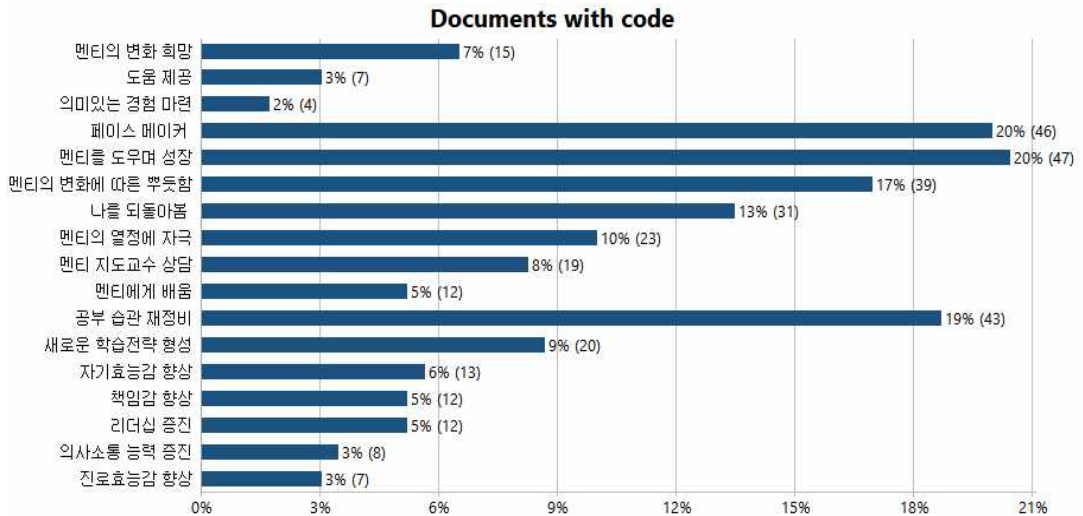
다음으로 빈도수가 높았던 ‘프로그램 참여 효과(32.6%)’에서 7개의 하위코드가 드러났으며, ‘공부 습관 재정비(34.3%)’, ‘새로운 학습전략 형성(16.4%)’, ‘자기효능감 향상(14.9%)’, ‘책임감 향상(11.2%)’, ‘리더십 증진(9.7%)’, ‘의사소통 능력 증진(7.5%)’, ‘진로효능감 향상(6.0%)’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참여 동기(6.8%)’에서 드러난 3개의 하위코드에서 ‘멘티의 변화 희망(57.1%)’, ‘도움 제공(28.6%)’, ‘의미있는 경험 마련(14.3%)’의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체 문서에서 멘토 경험이 코딩된 코드 구절 빈도를 계산한 결과 <그림 8>에 제시하였으며, 멘토 경험 하위 구성요인 16개 중 코딩 구절 10% 이상에 해당하는 핵심 키워드 5가지는 ‘멘티를 도우며 성장(20.4%)’, ‘페이스 메이커(20.0%)’, ‘공부 습관 재정비(18.7%)’, ‘멘티의 변화에 따른 뿌듯함(17.0%)’, ‘나를 되돌아봄(13.5%)’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코드 클라우드(Code Cloud)를 통해 시각화한 결과를 <그림 9>에 제시했다.

Code System	2022_1학기	2022_2학기	2023_1학기	SUM
멘토 경험				0
프로그램 참여 동기				0
멘티의 변화 희망	■	■	■	16
도움 제공	■	■	■	8
의미있는 경험 마련	■	■	■	4
프로그램 참여 경험				0
페이스 메이커	■	■	■	59
멘티를 도우며 성장	■	■	■	56
멘티의 변화에 따른 뿌듯함	■	■	■	42
나를 되돌아봄	■	■	■	33
멘티의 열정에 자극	■	■	■	26
멘티 지도교수 상담	■	■	■	21
멘티에게 배움	■	■	■	12
프로그램 참여 효과				0
공부 습관 재정비	■	■	■	46
새로운 학습전략 형성	■	■	■	22
자기효능감 향상	■	■	■	20
책임감 향상	■	■	■	15
리더십 증진	■	■	■	13
의사소통 능력 증진	■	■	■	10
진로효능감 향상	■	■	■	8
Σ SUM	144	98	169	411

<그림 7> Code matrix에서 멘토 경험 구성요인



<그림 8> 멘토 경험 Code frequenc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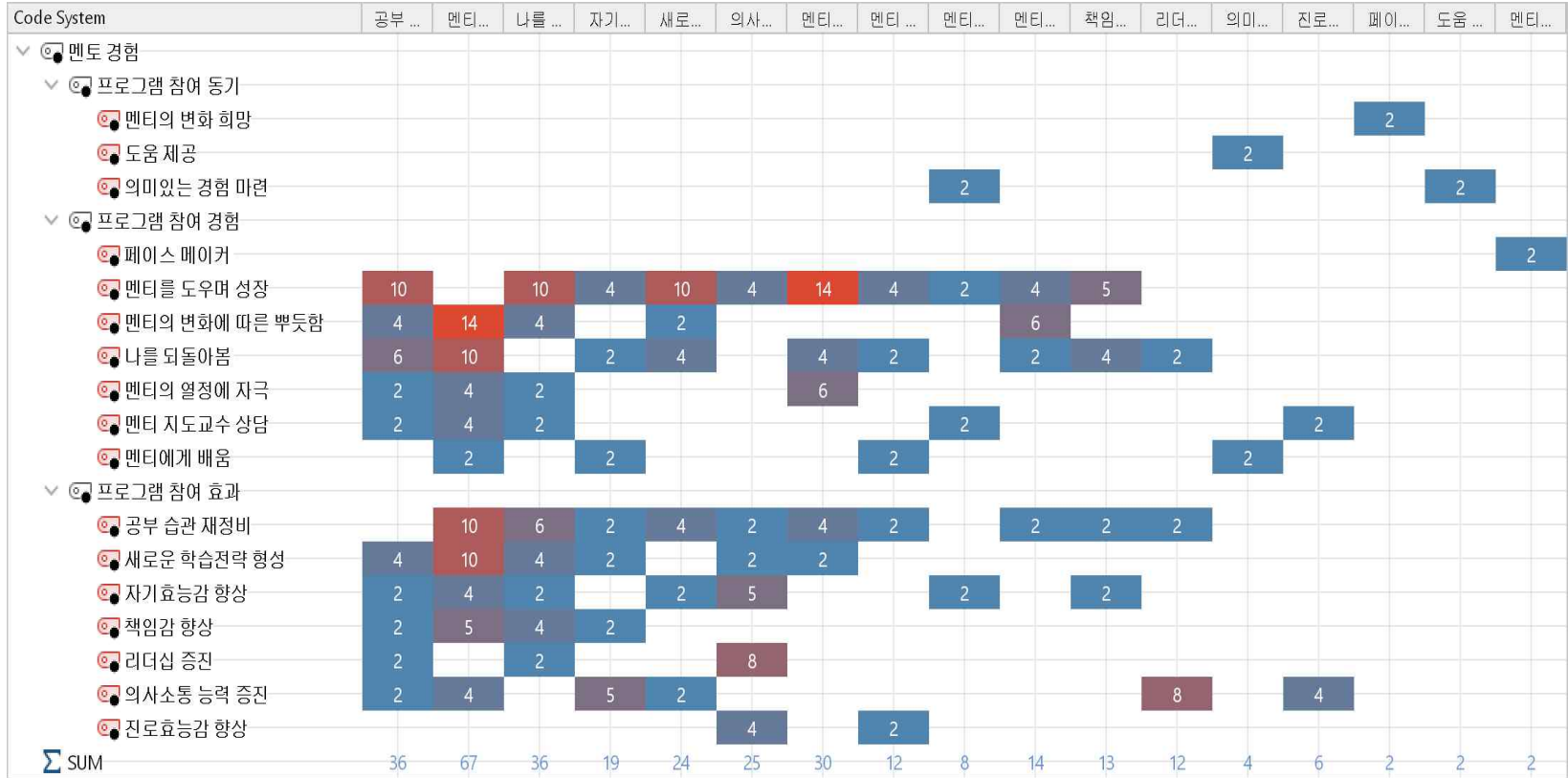
<그림 9> 멘토 경험 Code Cloud

b. 멘토 경험 연결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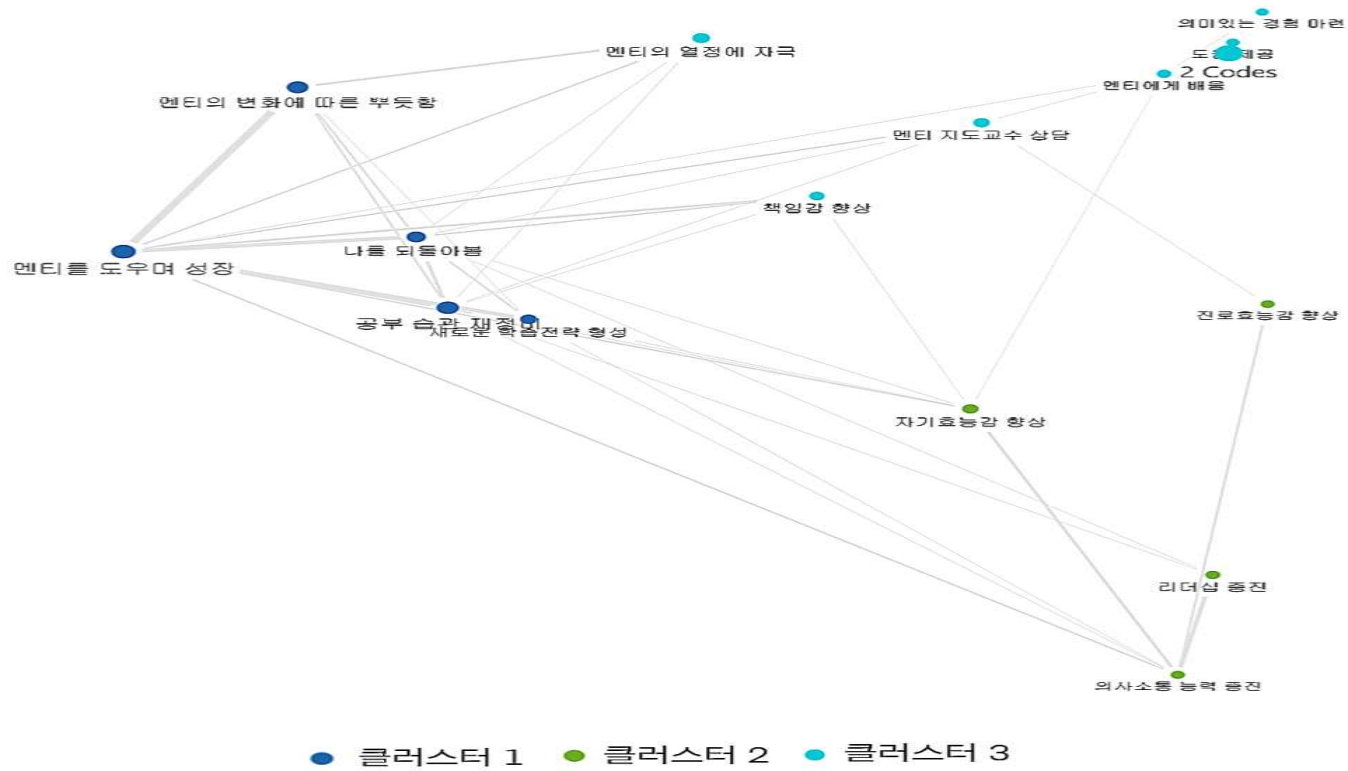
코드 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코드관계 브라우저(Code Relations Brower)를 실시하여 <그림 10>에 제시하였으며, 이는 패턴의 유사성 및 빈도 합계를 기준으로 정렬하여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다른 코드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코드는 ‘공부습관 재정비’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멘티를 도우며 성장’, ‘나를 되돌아봄’ 등이 있다.

다음으로 코드 간 관련성을 시각적인 연결망 형태로 파악하기 위해 코드맵을 실시한 결과를 <그림 11>에 제시하였다. 코드맵 위치에 따른 코드의 색상을 지정하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3개의 클러스터가 도출되었다. 각 클러스터마다 유사성이 가장 높은 상위코드 3개를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클러스터 1]의 경우 5개의 하위코드가 포함되었으며, 가장 연관성이 높은 코드는 ‘멘티를 도우며 성장’, ‘공부 습관 재정비’, ‘나를 되돌아봄’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클러스터 2]의 경우 총 4개의 하위코드가 포함되었으며, ‘의사소통 능력 증진’, ‘리더십 증진’, ‘자기효능감 향상’이 다른 코드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 3]에서 8개의 하위코드가 해당 클러스터에 포함되었으며, ‘멘티 지도교수 상담’, ‘멘티에게 배움’, ‘멘티의 변화 희망’이 다른 코드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코드맵을 통해 멘토의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서 도출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파악한 결과 ‘페이스 메이커’를 제외한 ‘멘티를 도우며 성장’, ‘공부 습관 재정비’, ‘멘티의 변화에 따른 뿌듯함’, ‘나를 되돌아봄’은 동일 클러스터에 위치하며, 서로 연결선이 모두 활성화되어 코드 간 동시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가장 높은 코드 빈도수를 보인 ‘멘티를 도우며 성장’을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멘티의 변화에 따른 뿌듯함’, ‘나를 되돌아봄’, ‘공부 습관 재정비’ 세 코드 모두와 동시성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동일 클러스터에 포함되지 않은 ‘페이스 메이커’의 경우 ‘멘티의 변화 희망’과 가장 동시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같은 클러스터 내 다른 코드들과 근거리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코드 간 연결선이 활성화되지 않아 ‘멘티의 변화 희망’ 외에는 동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 10> Code relations에서 멘토 경험 구성요인 유사성



<그림 11> 멘토 경험 Code map

c. 멘토 경험 세부 내용

성적경고자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토의 생생한 경험 도출을 위해 MAXQDA의 인비보(in-vivo) 코딩 기능을 통해 멘토들이 활동 보고서에 작성한 문장을 그대로 코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 참여 동기

코딩 결과 멘토가 성적경고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유는 ‘멘티의 변화 희망’, ‘도움 제공’, ‘의미있는 경험 마련’ 세 가지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멘티의 변화 희망

멘토는 멘티의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하길 바라고 있으며,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그러한 변화가 유지되길 바라는 모습을 보였다.

“활동이 끝나도 멘티가 좋은 학점을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활동 과정에서 얻은 생활 습관은 유지되길 바라고 있다.” (멘토링 5팀 멘토, 1회기 보고서)

“멘티의 학업 성적 향상을 위해서 신청한 프로젝트인 만큼 프로젝트 진행하는 동안 느낀 점이 있으면 좋겠고 프로젝트가 끝나고 계속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겠다.” (멘토링 22팀 멘토, 1회기 보고서)

“피어락 활동 이후에도 멘티가 학습 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급진적으로 바뀌지 않아 포기하는 것보다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변화했으면 좋겠다.” (멘토링 43팀 멘토, 1회기 보고서)

2) 도움 제공

멘토들은 멘티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때론 친구를 돕고 싶어서, 우연한 계기를 통해, 불특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 등 다양한 이유로 시작하였으나 도움을 제공하고 싶어 하는 것은 같았다.

“나는 앱을 통해서 멘티와 처음 알게 되었다. 정말 우연히 앱에 멘티가 올린 글을 읽게 되었다. 나는 원래 댓글을 잘 남기는 편은 아니다. 그런데 성적경고를 지우고 싶지만, 방법은 잘 모르는 듯한 멘티의 글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멘토링 18팀 멘토, 5회기 보고서)

“타 대학 주변 친구 중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우리 학과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멘토링 51팀 멘토, 5회기 보고서)

“처음엔 단순히 ‘친구의 학사경고를 삭제해 주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멘토링 77팀 멘토, 5회기 보고서)

3) 의미있는 경험 마련

멘토는 대학생활 중 멘토링을 통해 자신의 정보를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배워나가는 등 의미 있는 경험을 마련하고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리더십 및 시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나의 지식 및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배우고 싶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나는 내 것을 알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터득할 것이다.” (멘토링 25팀 멘토, 1회기 보고서)

“저는 늦은 나이에 취업을 성공하여서 마지막 학기를 마무리하려고 돌아왔습니다. 학교생활을 개인적으로 열심히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고 이런 노하우들을 다른 학생들에게 전해주어 마지막 보람을 느끼고 싶습니다.”

(멘토링 35팀 멘토, 1회기 보고서)

“작년에 이어 계속 내가 피어락 활동을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멘토링 37팀 멘토, 5회기 보고서)

(2) 프로그램 참여 경험

성적경고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토의 참여 경험은 총 7가지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세부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페이스 메이커

멘토들은 프로그램 멘티가 활동을 하며 지치지 않게끔 함께 달려가며 페이스를 조절해 줄 수 있도록 페이스 메이커가 되고자 했다. 앞서가면서 끌어주기 위해 격려, 지지, 도움제공 등 여러 역할을 하고자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 실패하더라도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옆에서 꾸준히 지켜봐 주고 성공한다면 옆에서 가장 기뻐할 것입니다.” (멘토링 5팀 멘토, 1회기 보고서)

“멘티가 학업에 지칠 때마다 옆에서 긍정적인 역할이 되어주며 공부 의지를 잡아주고 도와준다. 공부에 지치고 힘들어할 때 이겨낼 수 있도록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준다.” (멘토링 33팀 멘토, 1회기 보고서)

“친구가 프로그램에서 세운 목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 여부를 매일 체크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심을 줄 것입니다.” (멘토링 47팀 멘토, 1회기 보고서)

2) 멘티를 도우며 성장

멘토들은 멘티와 협력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함께 성장하는 것

을 경험했다. 멘티를 위해 정보를 찾아가며 자신에게도 필요한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수집하고 재건축하기도 했으며, 상호 목표를 통해 스스로 변화를 확인하기도 했다.

“현재 멘토 본인은 구체적인 진로와 계획을 다 세워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멘티의 진로와 계획을 함께 알아보며 스스로의 진로와 계획도 다시 수립하는 계기가 됐다.” (멘토링 29팀 멘토, 2회기 보고서)

“멘티를 위해 비교과 프로그램을 찾아보니 의외로 좋은 정보를 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모르고 지나다가 이제야 안 것이 후회될 정도이다. 그래도 아예 모르고 졸업하는 것보다는 좋다.” (멘토링 40팀 멘토, 4회기 보고서)

“멘티와 같이 목표를 잡고 아침에 게으르게 늦잠을 자지 않고 꾸준히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공부하려는 시간 계획 목표를 잡았고 성공률 80퍼센트 그 이상의 효과를 봐서 매우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멘토링 80팀 멘토, 5회기 보고서)

3) 멘티의 변화에 따른 뿌듯함

멘토들은 멘티의 변화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실감하며 뿌듯한 감정을 경험했다. 변화는 반갑기도 하고, 안심하기도 하는 등 복합적인 감정을 불러왔다.

“멘티가 수업 시간에 폰을 하지 않고 책을 챙겨왔을 때 가장 인상 깊다. 변화하는 멘티의 모습을 그때 처음 느낄 수 있었다.” (멘토링 12팀 멘토, 5회기 보고서)

“멘티가 교수님과 상담 후 자신의 진로나 계획에 대해 방향성을 잡게 된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았다. 평소에 잡생각도 많고 계획이 모호하여 걱정이 들었지만 지도 교수님과의 상담 후 깨달게 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안심됐다.” (멘토링 38팀 멘토, 2회기 보고서)

“그저 기본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것을 중심으로 도움을 주자 조금씩이지만 변하고 있는 게 눈에 보였다. 알려주면 알려준 대로 해주어 나도 꽤 재미를 붙이고 활동을 진행한 거 같다. 그리고 그 활동 끝에는 멘티가 어엿하게 F를 맞지 않는 과목이 생겨 정말 뿌듯하다.” (멘토링 72팀 멘토, 5회기 보고서)

4) 나를 되돌아봄

멘토들은 멘티에게 여러 조언과 도움을 주기 위해 고민의 시간을 거치면서 스스로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신을 되돌아보며 나는 현재 어떠한 모습인지, 잘하고 있는지 등 스스로를 점검하고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멘티에게 여러 조언을 해주면서 나도 이러한 점을 잘 지키고 실천하고 있는지, 나도 꾸준히 공부하는지, 계획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멘티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 내가 먼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게 되었다.” (멘토링 24팀 멘토, 5회기 보고서)

“멘티에게 조언을 해주는 입장이지만, 본인의 공부 환경이 이상적인 환경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반성했다.” (멘토링 29팀 멘토, 3회기 보고서)

“멘티의 학습 방법과 효율성 및 의욕 증진을 위해 고민하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스스로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 (멘토링 50팀 멘토, 5회기 보고서)

5) 멘티의 열정에 자극

멘토들은 멘티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자극을 받아 동기부여가 되는 경험도 했다. 멘티가 포기하지 않으며 정진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기도 했으며 멘티를 통해 자신의 나태함을 돌아보며 부끄러움을 느끼는 등의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시험기간일 때는 꾸준히 플래너를 짜고 멘티와 공유를 하였다. 그러나 시험이 끝나자마자 쉰다는 명목으로 며칠 쉬었더니, 그 새 해이해져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나중에 보니 멘티님은 꾸준히 챌린지를 하고 계셔서 부끄러웠다. 하지만 이것에 더 자극을 받아서 다시 열심히 살기로 다짐하였다.” (멘토링 17팀 멘토, 2회기 보고서)

“세웠던 목표는 다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다음에 또 도전하면서 더 열심히 자격증 공부를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제대로 생겨서 그런지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서 나아가는 모습에 오히려 내가 더 열심히 이끌고 잘 해내 가야겠다는 시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 (멘토링 49팀 멘토, 5회기 보고서)

“4회기로 전체 회기의 중반이 되었는데 1회기 만남 때보다 눈에 띄게 적극적으로 변화한 멘티의 모습에 자극을 받아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다.” (멘토링 62팀 멘토, 4회기 보고서)

6) 멘티 지도교수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멘토들은 멘티의 지도교수를 함께 만나 상담하는 경험을 했다. 전공이 같지 않더라도 멘티가 상담하는 모습을 보며 나름의 깨달음을 얻기도 했으며, 전공이 같거나 유사점이 있을 땐 공통의 고민을 해결하는 기회로 삼기도 하였다.

“멘티의 입장에서 상담을 시작했지만 비슷한 나이인지라 나 또한 공통으로 공감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미래에 대한 불안인데 교수님께서 멘티에게 해줬던 조언들이 나에게도 공감이 되어 이 부분을 둘 다 인상 깊었던 부분이다.” (멘토링 3팀 멘토, 2회기 보고서)

“멘티의 지도교수님과의 상담 내용을 통해 같이 계획을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나 자신도 너무 여유롭게 생각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성적 관리를 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멘토링 27팀 멘토, 2회기 보고서)

“내 전공과는 아예 관련 없는 교수님과의 상담이었지만 멘티에게 전해주는 인생 조언을 들으며 저의 삶도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
(멘토링 56팀 멘토, 5회기 보고서)

7) 멘티에게 배움

멘토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부족하거나 모르는 부분은 멘티를 보며 배워나갔다. 멘티의 좋은 습관, 자발성, 대학생활 정보 등을 통해 배워나갔다. 멘토링에서 멘티들만 멘토에게 배우고 학습할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멘티는 늘 아침 일찍 기상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모습이 나는 오히려 멘티가 존경스러웠던 부분이였다. 나는 이러한 점에서 멘티의 자기 관리와 규칙적인 삶에 대해 본받고 싶었다.” (멘토링 37팀 멘토, 5회기 보고서)

“다양한 공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학교를 4년간 다니면서 처음 들어보는 공간도 있다는 것을 멘티 덕에 알 수 있었다.” (멘토링 50팀 멘토, 3회기 보고서)

“멘티에게서도 배울 수 있는 점이 다양한 것이 있다고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4회기에서 멘티가 자발적으로 동기부여 취업 진로 방향 설정을 위하여 교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교내 다양한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 학업적으로 저번 학기보다 더 완성도 있는 2학기를 보낸 것 같아 만족스러웠다.” (멘토링 85팀 멘토, 5회기 보고서)

(3) 프로그램 참여 효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에게 7가지의 참여 효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공부 습관 재정비

멘토는 자신의 기존 공부 습관을 점검하고 재정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멘티에게 학업을 알려주며 자연스럽게 복습하며 해당 내용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도 있었으며, 공부 환경 탐색 및 학습전략 검사 등을 통해 기존의 학습에 관해 확인받을 수 있었다.

“나의 학습전략의 방향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또한, 나의 학습 방식의 장점을 파악해 내가 올바른 학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이를 고수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멘토링 3팀 멘토, 5회기 보고서)

“멘티의 공부 환경들을 점검해 보며 멘토인 나의 공부 환경도 어떠한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가르치며 배운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집중도가 올라가는 장소와 시간대는 언제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멘토링 8팀 멘토, 3회기 보고서)

“학년이 올라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잊게 된 공부 개념과 내용들을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기억했다.” (멘토링 21팀 멘토, 5회기 보고서)

2) 새로운 학습전략 형성

멘토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에게 알맞은 새로운 학습전략을 형성하는 효과를 얻었다. 더 좋은 공부 방법에 대해서 깨닫고, 색다른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아는 등 이를 통해 자신의 학습전략을 더욱 세련되게 만들 수 있었다.

“나의 시간 관리 방법, 좋은 공부 습관, 필기 방법, 시험전략 등 공부에 도움 될 수 있는 여러 정보를 알려주면서 더 좋은 방법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 (멘토링 16팀 멘토, 5회기 보고서)

“조금이라도 집중이 안 되면 무조건 다른 장소로 옮기려 했었는데 이 또한 한정적이라 고민이 됐다. 그러나 기존 환경에서 조금만 변화를 주어도 최대한의 공부 효율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천을 하였더니 매우 도움이 됐다.” (멘토링 17팀 멘토, 3회기 보고서)

“이번 기회에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조용하고 넓어서 공부하기에 괜찮은 장소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롭게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멘토링 45팀 멘토, 3회기 보고서)

3) 자기효능감 향상

멘토들은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 이끌어가는 새로운 경험을 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자신에 대한 믿음과 기대의 향상을 비롯해 능력을 재확인하는 등의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제가 누군가를 멘토링 할 수 있고, 귀감과 동기부여를 줄 수 있어 그간 스스로 대학생활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멘토링 26팀 멘토, 5회기 보고서)

“누군가를 이끌고 간다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선생님을 멘토삼아 공부하라, 질문하라는 말들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멘토라는 것만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멘티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오던 중이었습니다. (중략) 소극적으로 제안해 보던 조언과 말은 이제 힘 있는 말이 돼가는 것이 느껴졌고, 이 친구를 대함에 있어 한낱 말에서만이 아닌 나의 행동이 바뀌는 것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멘토를 해보기 전에는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멘토-멘티를 하던 중에는 ‘할만한데’ 라는 생각이 되었고 이 활동이 끝나가던 차에는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멘토링 48팀 멘토, 5회기 보고서)

“피어락 기간 동안 3학년이다 보니 개인적으로 많은 전공 과제가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해보아겠다는 생각에 시간 관리를 더 철저히 하려고 스스로도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에게는 한 번에 많은 일이 닥치더라도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멘토링 62팀 멘토, 5회기 보고서)

4) 책임감 향상

멘토들은 때론 멘티에게 적절한 모델링을 제공하기 위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신과 협력하여 활동하는 멘티를 위해 자신의 몫을 다하는 등 멘토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책임감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었다.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멘토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했다.” (멘토링 7팀 멘토, 5회기 보고서)

“시험 기간에는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지만 내가 멘토의 역할을 맡게 된 만큼 최소한 내가 할 일을 잊어버리지는 말자는 책임감이 들었기 때문에 먼저 나서서 계획을 짜고 처음 목표했던 것처럼 주기적으로 현황을 보내면서 멘티분의 참여를 독려했다.” (멘토링 45팀 멘토, 5회기 보고서)

“내가 얻은 성과는 책임감과 성실함인 것 같다. 먼저 이번 활동을 하면서 1회기에 설정한 수업 잘 참여, 잘 듣기 등은 원래 잘하던 것이었지만, 이번 활동을 같이하는 멘티를 잘 이끌어서 멘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줘야 했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했다.” (멘토링 60팀 멘토, 5회기 보고서)

5) 리더십 증진

멘토들은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도모하기 위해 멘티를 이끄는 리더로서 자질을 발견하였으며, 어떤 방식을 사용하면 더 잘 이끌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

을지 등의 리더십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저는 지금도 자신감 있게 동기들을 도와주며, 제가 어떤 시점에서 뿐만 아니라 동기들을 도와주어야 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며, 얼마나 알려주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멘토링 43팀 멘토, 5회기 보고서)

“멘토링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피드백을 제공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멘토로서의 경험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경험은 리더십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멘토링 50팀 멘토, 5회기 보고서)

“활동을 많이 할수록 팀원을 어떻게 하면 잘 설득할 수 있고, 계획 이행을 위하여 팀원들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에 대해 노하우가 늘어나는 것 같다.” (멘토링 82팀 멘토, 5회기 보고서)

6) 의사소통 능력 증진

멘토들은 타인과 소통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타인의 입장을 고려해 언제 어떻게 소통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 의사소통 능력이 증진된 효과를 얻었다. 시선을 공유하고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타인을 적절히 배려하고 신경쓰면서 그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된 것이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나와 같은 시선을 공유하지 않는 상대를 어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의지를 확인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멘토링 30팀 멘토, 5회기 보고서)

“무작정 나 혼자 아니까 ‘이렇게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 입장에서 어떻게 푸는 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멘토링 43팀 멘토, 5회기 보고서)

“멘티와 활발한 의사소통과 협업을 하면서 의사소통 능력도 기를 수 있었다.” (멘토링 78팀 멘토, 5회기 보고서)

7) 진로효능감 향상

멘토들은 멘토링 관계에서 진행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보다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여러 활동을 통해 진로를 확립할 수도 있었다. 이렇듯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어 진로효능감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었다.

“멘토는 고민거리를 해결했으며 진로에 대한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멘토링 5팀 멘토, 2회기 보고서)

“개인적으로 교육자가 장래 희망인 나에게, 피어락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성이 모두 도움이 되었다. 다른 사람과 같이 가기 위해 목표를 함께 설정하고, 그 과정을 공유하는 모든 과정이 교육자를 진로로 희망하는 나에게 소중한 경험이었다. 학습 방향을 함께 조정해 나가는 것이 쉽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나처럼 교육자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꼭 추천해 주고 싶은 프로그램이었다.” (멘토링 30팀 멘토, 5회기 보고서)

“이번에 교생실습을 다녀오면서 다수의 인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 소수의 인원을 관리하면서 그들에게 맞는 점진적, 단계적 학습방법 컨설팅, 생활지도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느껴 멘티님에게도 공유하였을 때, 본인은 교육직이 천직이란 것을 알게 된 것이 주 성과이다.” (멘토링 84팀 멘토, 5회기 보고서)

3. 상호작용 경험

a. 상호작용 경험 핵심 키워드 추출 및 시각화

본 연구에서 성적경고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드러난 상호작용 경험 요인분석 결과 1,483개의 코드가 코딩되었으며, 코딩한 결과는 <그림 12>에 제시했다. 코드시스템(Code system)에서 구조를 살펴보면 가장 빈도수가 높은 상위코드(parent code)에 따라 ‘멘토링 관계의 질 향상 노력(36.7%)’, ‘탄탄한 협력관계 구축(23.0%)’, ‘초기 협력관계(17.9%)’, ‘멘토링 초기 구조화(12.7%)’, ‘멘토 멘티 긴장과 대립(9.6%)’순으로 나타났다.

첫째, 가장 빈도수가 높은 상위코드(parent code)인 ‘멘토링 관계의 질 향상 노력(36.7%)’에서 13개의 하위코드가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꾸준한 의사소통(17.4%)’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동행(16.9%)’, ‘지속적 목표관리(11.6%)’, ‘맞춤형 솔루션(9.2%)’, ‘적극적 노력(8.4%)’, ‘상호 고민 공유(6.8%)’, ‘대학 정보 공유(6.4%)’, ‘응원과 지지(6.2%)’, ‘또래 협력학습(5.3%)’, ‘꾸준한 시도(3.3%)’, ‘상기 목표 다짐(3.1%)’, ‘일정 조율(2.9%)’, ‘현실적인 목표로 변경(2.4%)’로 드러났다.

둘째, 다음으로 빈도수가 높았던 ‘탄탄한 협력관계 구축(23.0%)’의 경우 9개의 하위코드가 나타났으며, ‘상호 이해(24.6%)’, ‘소속감(16.7%)’, ‘대학생활 경험 공유(13.2%)’, ‘유대감(10.6%)’, ‘고마움(10.3%)’, ‘함께 성장(8.8%)’, ‘관계 유지 열망(5.9%)’, ‘점진적 행동 변화(5.0%)’, ‘상호 인식 변화(5.0%)’로 나타났다.

셋째, ‘초기 협력관계(17.9%)’에서는 총 6개의 하위코드가 나타났으며, ‘학습 방법 공유(31.2%)’, ‘적극적 참여(17.3%)’, ‘상호성장 희망(17.3%)’, ‘활발한 의사소통(15.4%)’, ‘촉진자(9.8%)’, ‘함께하는 공부(9.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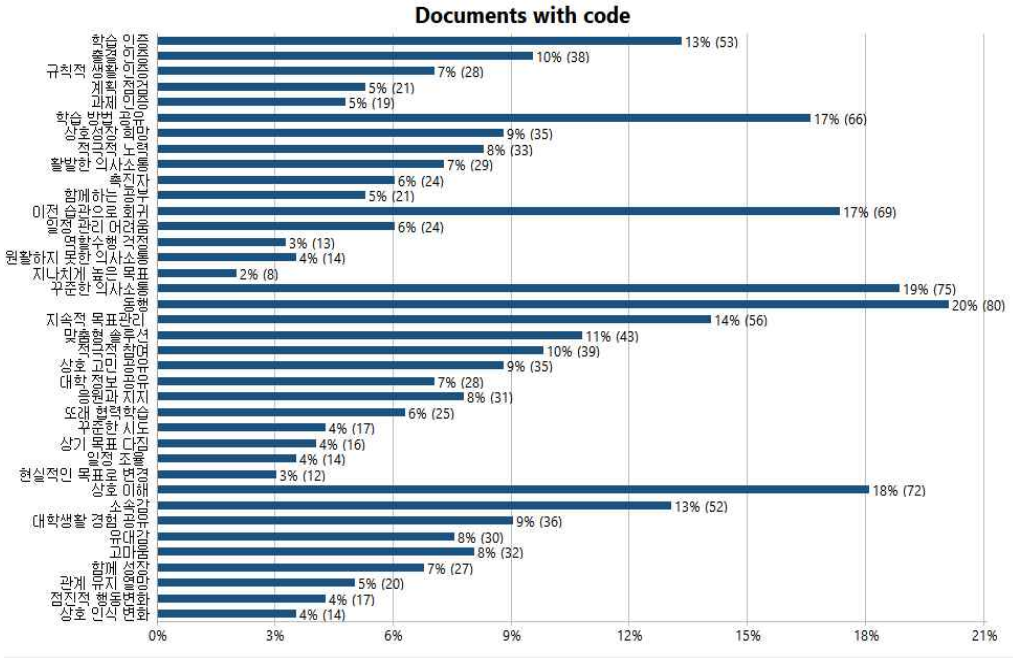
넷째, ‘멘토링 초기 구조화(12.7%)’의 경우 5개의 하위코드가 나타났으며 ‘학습 인증(36.5%)’, ‘출결 인증(22.8%)’, ‘규칙적 생활 인증(18.5%)’, ‘계획 점검(12.2%)’, ‘과제 인증(10.1%)’로 나타났다.

다섯째, ‘멘토-멘티 긴장과 대립(9.6%)’의 경우 총 5개의 하위코드가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이전 습관으로 회귀(54.2%)’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뒤를 이어 ‘일정 관리 어려움(19.0%)’,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10.6%)’, ‘역할수행 걱정(10.6%)’, ‘지나치게 높은 목표(5.6%)’로 나타났다.

전체 문서에서 상호작용 경험 코드 구절 빈도를 계산한 결과 <그림 13>과 같이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경험 하위 구성요인 38개 중 코딩 구절 10% 이상에 해당하는 핵심 키워드 5가지는 ‘동행(20.2%)’, ‘꾸준한 의사소통(18.9%)’, ‘상호 이해(18.1%)’, ‘이전 습관으로 회귀(17.4%)’, ‘학습 방법 공유(16.6%)’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코드 클라우드(Code Cloud)를 통해 시각화한 결과를 <그림 14>에 제시했다.

Code System	2022_1학기	2022_2학기	2023_1학기	SUM
상호작용 경험				0
멘토링 초기 구조화				0
학습 인증	■	■	■	69
졸결 인증	■	■	■	43
규칙적 생활 인증	■	■	■	35
계획 점검	■	■	■	23
과제 인증	■	■	■	19
초기 협력관계				0
학습 방법 공유	■	■	■	83
상호성장 희망	■	■	■	46
적극적 노력	■	■	■	46
활발한 의사소통	■	■	■	41
촉진자	■	■	■	26
함께하는 공부	■	■	■	24
멘토 멘티 긴장과 대립				0
이전 습관으로 회귀	■	■	■	77
일정 관리 어려움	■	■	■	27
역할수행 걱정	■	■	■	15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	■	■	15
지나치게 높은 목표	■	■	■	8
멘토링 관계의 질 향상 노력				0
꾸준한 의사소통	■	■	■	95
동행	■	■	■	92
지속적 목표관리	■	■	■	63
맞춤형 솔루션	■	■	■	50
적극적 참여	■	■	■	46
상호 고민 공유	■	■	■	37
대학 정보 공유	■	■	■	35
응원과 지지	■	■	■	34
도래 협력학습	■	■	■	29
꾸준한 시도	■	■	■	18
상기 목표 다짐	■	■	■	17
일정 조율	■	■	■	16
현실적인 목표로 변경	■	■	■	13
단단한 협력관계 구축				0
상호 이해	■	■	■	84
소속감	■	■	■	57
대학생활 경험 공유	■	■	■	45
유대감	■	■	■	36
고마움	■	■	■	35
함께 성장	■	■	■	30
관계 유지 열망	■	■	■	20
점진적 행동변화	■	■	■	17
상호 인식 변화	■	■	■	17
Σ SUM	603	386	494	1483

<그림 12> Code matrix에서 상호작용 경험 구성요인



<그림 13> 상호작용 경험 Code frequenc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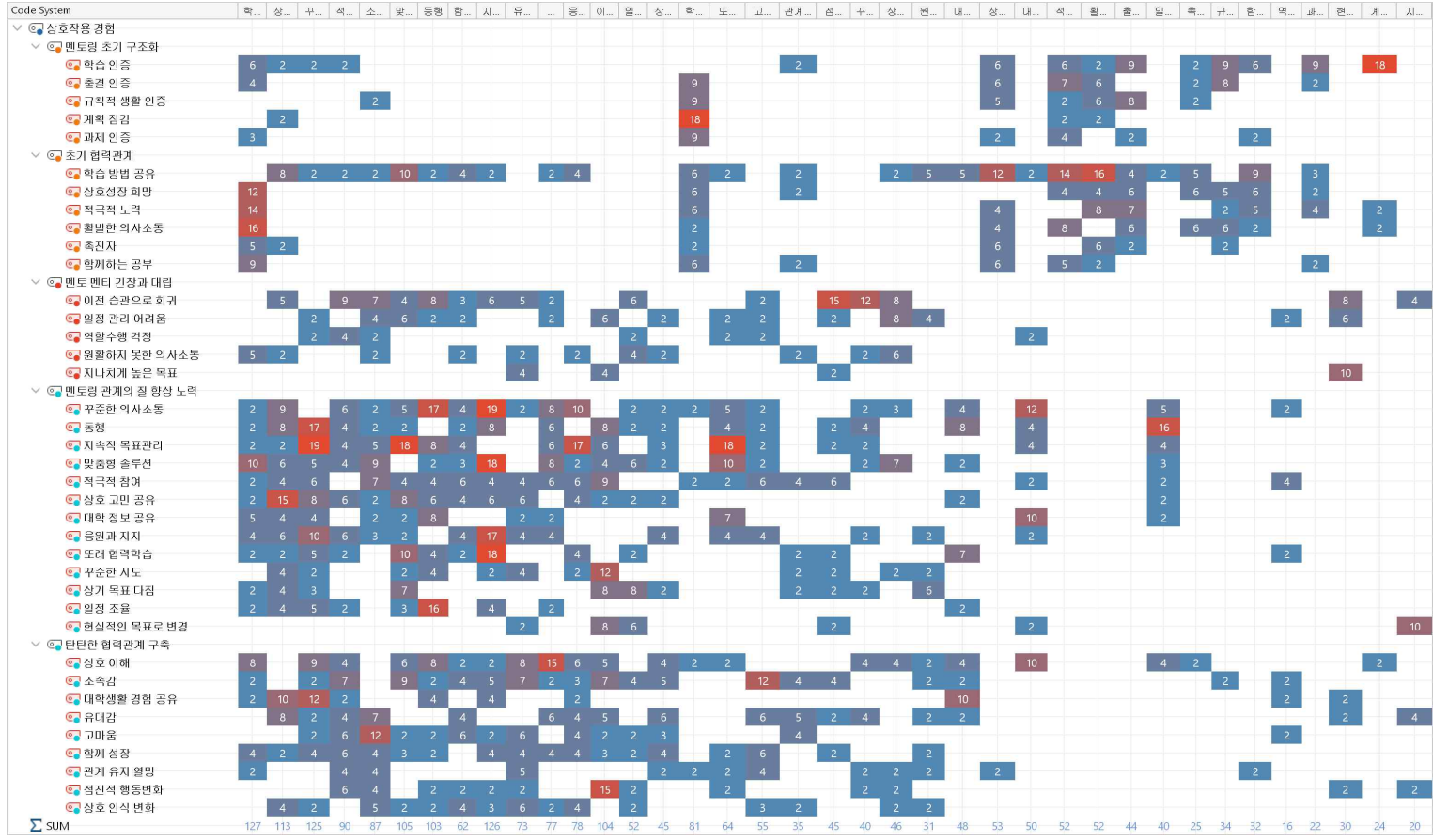
<그림 14> 상호작용 경험 Code Cloud

b. 상호작용 경험 연결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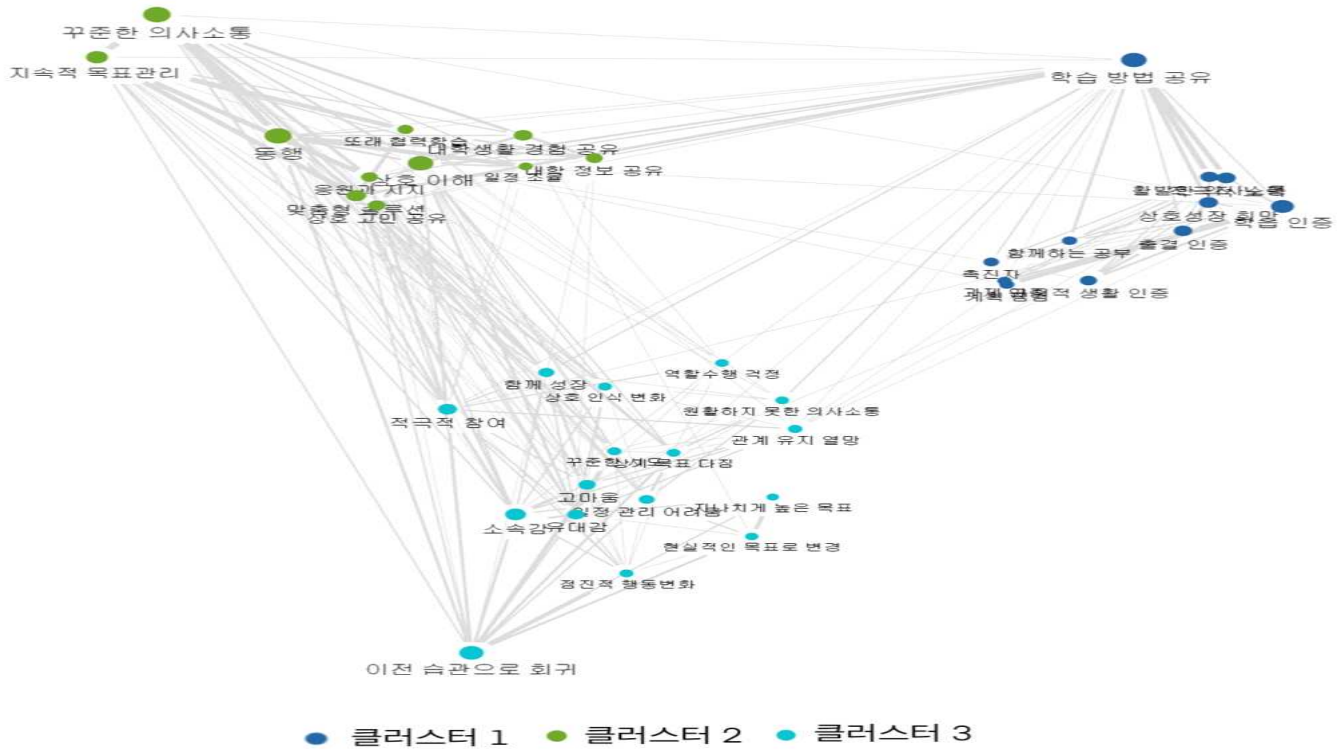
코드 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코드관계 브라우저(Code Relations Brower)를 실시하여 <그림 15>에 제시하였으며, 이는 패턴의 유사성 및 빈도 합계를 기준으로 정렬하여 제시하였다. 상호작용 경험에서 다른 코드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코드는 ‘학습방법 공유’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상호 이해’, ‘꾸준한 의사소통’ 등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코드 간 관련성을 시각적인 연결망 형태로 파악하기 위해 코드맵을 실시한 결과를 <그림 16>에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총 3개의 클러스터가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클러스터 별로 유사성이 가장 높은 상위코드 3개를 파악했다. 먼저 [클러스터 1]에서 11개의 하위코드가 자리 잡고 있으며, 유사성이 가장 높은 3개의 코드는 ‘학습 인증’, ‘적극적 노력’, ‘활발한 의사소통 노력’으로 나타났다. [클러스터 2]의 경우 11개의 하위코드가 동일 클러스터 내에 군집해 있으며, 가장 데이터 내 유사성이 높은 코드는 ‘상호 이해’, ‘꾸준한 의사소통’, ‘맞춤형 솔루션’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 3]의 경우 16개의 하위코드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대감’, ‘소속감’, ‘이전 습관으로 회귀’ 순으로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코드맵을 통해 멘토와 멘티의 상호작용 경험에서 도출된 핵심 키워드를 구조적으로 파악한 결과, ‘동행’과 ‘꾸준한 의사소통’, ‘상호 이해’는 동일 클러스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전 습관으로 회귀’와 ‘학습방법 공유’는 각각 [클러스터 2]와 [클러스터 3]에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클러스터 위치는 각기 다르나, 서로 연결선이 모두 활성화되어 코드 간 동시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가장 높은 코드 빈도를 보인 ‘동행’의 경우 ‘꾸준한 의사소통’과 가장 동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 이해’와 가장 근거리에 위치해 유사성이 높은 것이 나타났다. [클러스터 2]에 위치한 ‘이전 습관으로 회귀’의 경우 ‘점진적 행동 변화’와 가장 근거리에 위치했으며, ‘꾸준한 시도’와 동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클러스터 3]에 자리 잡고 있는 ‘학습방법 공유’의 경우 ‘적극적 노력’과 가장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활발한 의사소통’과 동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5> Code relation에서 상호작용 경험 구성요인 유사성



<그림 16> 상호작용 경험 Code Map

c. 상호작용 경험 세부 내용

성적경고자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토와 멘티의 상호작용 경험의 생생한 도출을 위해 MAXQDA의 인비보(in-vivo) 코딩 기능을 통해 멘토와 멘티가 활동 보고서에 작성한 문장을 그대로 코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멘토링 초기 구조화

멘토링 초기 구조화'에서 멘토와 멘티는 초기에 설정한 목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의논했다. 멘토와 멘티가 주로 설정한 목표는 '규칙적 생활', '과제', '출결', '학습'이었다. 특히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상호작용 요인으로 '인증' 및 '점검'의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로 멘티가 설정한 목표와 관련하여 실행한 행동을 멘토에게 확인받는 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호 간에 공동 목표가 있으면 서로 확인 및 공유하고자 했다. 세부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습 인증

멘토와 멘티는 수업에 잘 집중하였는지 점검하거나, 실질적인 학업 시간 향상 및 학습에 방해되는 요인들을 제거하였는지 등을 확인하며 학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힘쓰고자 했다.

“공부 시간 공유 어플을 활용하여 공부 시간을 서로 공유한다.” (멘토링 9팀, 1회기 보고서)

“방해되는 물건 치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만들고 공부 후 인증샷을 보낸다.” (멘토링 45팀, 1회기 보고서)

“하루에 한 번 그날 공부하면서 필기했던 것, 온라인 강의 수강 시간을 확인한다.” (멘토링 66팀, 1회기 보고서)

2) 출결 인증

멘티가 지각 및 결석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수업 전 만남을 갖거나, 주기적으로 서로의 출결 현황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어떤 경우엔 매 수업 시작 전 출결 사항을 알려주며 보다 촘촘하게 확인하였다.

“매일 아침 8시에 멘토와 함께 동네 산책을 하며 인증샷을 찍고 출석 인증샷을 보낸다.” (멘토링 15팀, 1회기 보고서)

“일주일마다 시간표를 보며 수업 가는 거 체크하고, 과제 나오고 하는 모습을 체크한다.” (멘토링 23팀, 1회기 보고서)

“수업 50분 전 문자 남김으로 자고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 (멘토링 57팀, 1회기 보고서)

3) 규칙적 생활 인증

멘토와 멘티는 규칙적인 생활을 위하여 운동, 수면, 식사 등을 개선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애플리케이션, SNS, 연락 등을 통해 확인 및 점검을 시행하고자 했다.

“매일 늦잠 자지 않고 알람을 맞추어 멘토에게 기상인증을 한다.” (멘토링 1팀, 1회기 보고서)

“멘티는 알람을 맞추고, 멘토는 영상통화 걸고 양치할 때까지 봐준다.” (멘토링 14팀, 1회기 보고서)

“하루에 한 끼 이상 식사 인증샷을 보낸다.” (멘토링 39팀, 1회기 보고서)

4) 계획 점검

멘토와 멘티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 달 동안 수행할 공부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점검하며 수정 및 보완하는 작업을 거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아침에 멘토와 멘티 모두 카카오톡으로 플래너 공유한다.” (멘토링 17팀, 1회기 보고서)

“멘토와 같이 계획을 잘 이행했는지 일주일 간격으로 검사한다.” (멘토링 38팀, 1회기 보고서)

“과목별로 분량을 대충 예상하여 4주간 어떤 방법으로 공부할지 주차 별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리한다.” (멘토링 61팀, 1회기 보고서)

5) 과제 인증

멘토는 멘티가 과제를 잘 제출하고 수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과제 마감 전후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멘티는 과제 제출 이후 인증을 통해 멘토에게 확인받고자 하였다.

“멘토와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과제 폴더를 만들어 정리하고 공부 피드백을 받는다.” (멘토링 26팀, 1회기 보고서)

“과제 제출 완료 표시를 멘토에게 공유하고 과제 점수를 확인한다.” (멘토링 48팀, 1회기 보고서)

“수업 전날에 과제를 다 하였는지 문자를 보낸다.” (멘토링 57팀, 1회기 보고서)

(2) 초기 협력관계

‘초기 협력관계’에서 멘토와 멘티는 서로의 내재되어 있는 동기를 끌어내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기반을 다지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위해 멘토와 멘티라는 위계적 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닌 협동 정신을 기반으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했다. 세부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1) 학습 방법 공유

프로그램 진행 초기에 멘토와 멘티는 무엇보다 학업능력 증진 및 성취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목적에 맞게 각자의 학습 방법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학과에 따른 전략을 설명해 주기도 하였으며, 학습태도, 학습환경, 필기 방법 등 학업과 관련된 다양한 방법을 공유했다.

“멘티의 학습법과 학습 태도, 마음가짐을 함께 돌아보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알려준다.” (멘토링 29팀, 1회기 보고서)

“전공과목 자료 등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업능력과 자료를 멘티에게 제공해 주어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 (멘토링 34팀, 1회기 보고서)

“도서관에서 어느 열람실이 좋은지, 몇 층에 개인 독서실 형태의 열람실이 있는지 등의 조연을 하고, 학교 후문에 있는 스터디 카페들에 대한 후기를 알려주었습니다.” (멘토링 35팀, 3회기 보고서)

2) 상호성장 희망

멘토와 멘티는 서로의 발전을 희망했다. 이러한 모습은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멘토-멘티 역할에 국한되어 일방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과 구별된다.

“두 명의 공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멘토, 멘티의 역할을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계획이다.” (멘토링 17팀, 1회기 보고서)

“일방적으로 조언만 해주는 관계가 아닌 서로 소통을 하며 함께 발맞추어 성장하는 게 진정한 조력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멘토링 67팀, 1회기 보고서)

“나도 00이의 친구이자 동기이기 때문에 전공과목에 대한 어려움과 막막함을 나누면서 고민도 나누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멘토링 79팀, 1회기 보고서)

3) 적극적 노력

변화를 시작하고자 하는 초기 단계에 멘티의 경우 멘토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하였으며, 멘토의 경우 멘티가 도움을 요청할 시 책임감과 열정을 기반으로 이를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반응하고자 하였다.

“멘토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질문 및 참여한다. 적극적으로 멘토링 활동 참여 및 추진한다.” (멘토링 53팀, 1회기 보고서)

“팀으로 활동하는 만큼 직전 학기보다 발전하기 위해 완벽하지 못한 순간이 와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멘토링 66팀, 1회기 보고서)

“멘토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참여하고 잘못된 공부 습관을 찾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멘토링 82팀, 1회기 보고서)

4) 활발한 의사소통

멘토와 멘티는 꾸준히 소통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태도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대면으로 학교에서 직접 만남을 갖거나, 비대면으로 학교 밖에서도 연락을 취하고자 하는 등 참여자들 각자의 편이에 맞추어 활발하게 의사소통하고자 하려고 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만나서 멘토링을 할 수 없더라도 조언할 수 있도록 한다.” (멘토링 26팀, 1회기 보고서)

“알려준 계획 일정에 마감 날짜가 포함된 일정은 하루나 이틀 전에 물어 보고 확인한다.” (멘토링 71팀, 1회기 보고서)

“멘토가 매일 학교에 있으므로 강의 종료 후 가볍게 만난다.” (멘토링 77팀, 1회기 보고서)

5) 촉진자

멘토와 멘티로 함께 활동하게 되면서 참여자들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것이 아닌 일상을 함께하고 함께 변화해 가는 동행자로서 목표 달성을 위해 나아가갈 것을 염두에 두었으며, 이를 위해 서로 끊임없는 노력을 하며 촉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멘티는 멘토와 함께 A+를 맞기 위하여 공부와 복습을 열심히 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공부를 같이 할 것이다.” (멘토링 1팀, 1회기 보고서)

“멘티가 절대 홀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동행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피어樂 멘토로서, 동기지만 대학 생활 선배로 멘티의 세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멘토링 5팀 1회기 보고서)

“작은 부분이나마 함께 실천하며 실천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한다.” (멘토링 65팀, 1회기 보고서)

6) 함께하는 공부

멘토와 멘티는 학업성취를 달성하기 위한 자리에 함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험을 위한 학업, 학기 중 발생하는 과제 등을 수행하고자 날짜를 정하고 함께 만나는 약속을 정했다.

“과제가 올라오면 멘토와 함께 만나서 과제 할 약속일을 정한다.” (멘토링 39팀, 1회기 보고서)

“매주 요일을 정해놓고 같이 문제를 풀 것이다.” (멘토링 41팀, 1회기 보고서)

“시험 3주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함께 카페나 도서관 가서 공부한다.” (멘토링 76팀, 1회기 보고서)

(3) 멘토-멘티 긴장과 대립

초기에 협력관계를 형성하며 멘토링 진행과 관련된 초석을 다지고자 힘썼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멘토-멘티 사이에 미묘한 긴장과 대립이 발생했다. 일대일 관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 만큼 멘토와 멘티 각자의 입장 및 생각 차이로 인해 곤란을 겪거나, 처음 설정했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변화에 제약이 걸리는 등 참여자들은 일종의 멘토링 격동기, 즉 카오스 상태를 직면하곤 하였다.

1) 이전 습관으로 회귀

멘토와 멘티는 처음 기대했던 것처럼 빠르게 변화하지 않는 것을 경험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의 열정은 다소 식어가고 이전 습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과거에 형성된 습관인 만큼 쉽사리 깨지지 않았으며, 시험과

같은 바쁜 일정이 끝나고 나서 자신도 모르게 긴장이 풀려 되돌아가기도 했다. 이러한 모습은 멘티뿐 아니라 공동 목표를 세웠던 멘토에게도 해당했다.

“시험이 끝나자마자 쉬다는 명목으로 며칠 쉬었더니 그새 헤이해져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멘토링 17팀 멘토, 2회기 보고서)

“출석하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과 열정이 생겨 지각과 결석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비해 수업이 있는지 살짝 까먹을 때가 있어 지각 및 결석을 하게 되었다.” (멘토링 29팀 멘티, 4회기 보고서)

“휴대폰을 줄이려고 잠금 어플을 깔아도 노트북으로 하거나 그 시간에 TV를 보는 등 딴짓하는 시간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멘토링 43팀 멘티, 5회기 보고서)

“학교를 자주 빠지던 버릇 탓인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만 설까?’ 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멘토링 82팀 멘티, 5회기 보고서)

2) 일정 관리 어려움

멘토와 멘티는 바쁜 학과 일정과 프로그램을 병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경험했다. 학기마다 멘토링이 진행되는 시기에 차이가 있는 것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는데, 1학기에 진행된 멘토링의 경우 MT, 동아리 등 새 학기에 주로 발생하는 일정들과 조율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으며, 2학기에 진행된 경우엔 연말이 다가오며 멘토링과 학과 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호소했다.

“멘토가 계속 활동이 끝나서 아쉽다고 했다. 나도 멘토의 말을 듣고 같은 생각이 들었다. 피어락 활동을 하면서 일정 맞추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늘 시간을 쪼개서 만나야 만날 수 있었다. 멘토도 힘들었지만 나도 힘들었다.” (멘토링 5팀 멘티, 5회기 보고서)

“학기 중에 성적을 챙기면서 프로그램도 해야 해서 가끔 너무 벅차서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 (멘토링 18팀 멘티, 5회기 보고서)

“00이가 요즘 시험 기간이라서 자주 하기 힘들다고 하여 최근에는 운동을 자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멘토링 42팀 멘토, 4회기 보고서)

“MT 주간이고 학과나 동아리에서 여러 활동이나 약속들이 많아 유혹을 이겨내기 힘든 달이다.” (멘토링 43팀, 2회기 보고서)

3) 역할수행 걱정

멘토와 멘티는 멘토링을 진행하기 시작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염려했다. 멘토의 경우 자신이 변화를 이끄는 주축이라는 사실에 부담감을 느꼈으며, 멘티의 경우 자신이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처음에는 성적경고를 받은 멘티가 학교생활에 흥미를 갖고, 출석, 과제, 시험준비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느껴졌다.” (멘토링 29팀 멘토, 5회기 보고서)

“처음에 피어락을 시작하면서 내가 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멘티님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들었다.” (멘토링 61팀 멘토, 2회기 보고서)

“초반에는 서로 각을 잡고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많이 걱정도 하고,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했다.” (멘토인 49팀 멘티, 5회기 보고서)

“활동을 지원하기 전에는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자신감이 부족했다.” (멘토링 69팀 멘티, 5회기 보고서)

4)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멘토와 멘티는 연락이 잘되지 않는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으며, 서로 의견이 달라 고충을 겪기도 했다. 어떤 팀은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다른 팀은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만난 낯선 사람과 소통하는 것에 힘들어하기도 했다.

“시간 조율이 안 맞을 때, 연락이 잘 안 닿을 때 등 다양한 이유로 변수가 생길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멘토링 5팀 멘토, 5회기 보고서)

“중간에 멘토랑 싸우기도 하고, 포기할까 생각도 했다.”

“말다툼을 했었다. 내가 생각한 멘티의 한계점은 이 정도가 아니었을 텐데, 멘티는 자신감을 잃은 것인지 목표를 너무나도 낮게 잡고 이행하자는 것이었다. ‘나는 너 할 수 있다.’, ‘하면 다 된다.’ 라는 말로 회유해 보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의견충돌이 일어났었다.” (멘토링 25팀, 5회기 보고서)

“멘티가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힘들기도 했다.” (멘토링 76팀 멘토, 5회기 보고서)

5) 지나치게 높은 목표

멘토와 멘티는 처음에 설정한 목표가 너무 높아 어려움을 경험했다. 극적인 변화를 위한 시도를 진행하였으나 현실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다. 때론 멘토가 이러한 멘티의 어려움을 알아채기도 했으며, 멘티 스스로가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버거움을 느끼기도 했다.

“학기 초반에 열정에 불타 과제를 3/4 이상은 내겠다고 했으나 힘들어하는 것 같다.” (멘토링 5팀 멘토, 3회기 보고서)

“처음 목표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나는 매일 수업을 듣기 전 이른 아침

시간에 운동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방법은 매일 하기엔 난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몸이 피곤해서 수업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멘토링 18팀 멘티, 5회기 보고서)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보진 않지만, 창밖을 보게 되었다. 힘들다…. 일주일에 2번 3시간 하는 게 너무 힘들다….” (멘토링 47팀 멘티, 3회기 보고서)

(4) 멘토링 관계의 질 향상 노력

‘멘토링 관계의 질 향상 노력’에서는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멘토와 멘티가 변화를 위한 행동적인 변화들을 동반했다. 처음 설정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다시 다짐하기도 하고, 지속해서 의사소통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여러 행동이 드러났다. 세부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꾸준한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멘토와 멘티는 꾸준히 의사소통을 진행했다. 회기가 진행되면서 중간에 서로 소감을 공유하기도 하고,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야기 나누는 것을 통해 활동에서 경험한 것이 개인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의 생각을 알게 되면서 더욱 풍부한 활동이 진행되게끔 도와주었다.

“서로 교수님과의 상담에 대한 내용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 또는 학교 공부 이외 풀어야 할 문제 연습과 같은 부분들을 함께 찾아보고, 학교 공부 이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멘토링 12팀, 2회기 보고서)

“상담 이후 소감을 멘토와 공유하고 대학생활 및 진로 설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멘토링 13팀, 2회기 보고서)

“중간고사 성적이 발표된 것이 있다면 잘 봤는지,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했다.” (멘토링 20팀, 5회기 보고서)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중간 소감을 각자 말해보며, 부족한 부분이나 아쉬운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멘토링 26팀, 3회기 보고서)

2) 동행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멘토와 멘티는 대학 프로그램, 학습환경 탐색, 상담 등 많은 활동을 동행 했다. 멘토와 멘티는 한 번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함께했다. 대학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신청하여 진행하기까지 함께했으며, 학습환경 탐색의 경우에도 하나의 장소가 아닌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며 비교 분석했다. 멘토와 멘티는 회기를 진행하면서 어느새 학교생활 전반적인 부분을 모두 함께했다.

“멘토와 멘티가 같이 학과 지도 교수님께 대학생활, 전공과목 공부, 그리고 진로 설정에 관하여 상담했다. (멘토링 38팀, 2회기 보고서)”

“멘토와 멘티가 여러 장소를 같이 돌아다니며 최소 30분 이상 공부를 해봄. 여러 공부 환경에 따라 집중도가 다른 걸 잘 알게 되었음.” (멘토링 44팀, 3회기 보고서)

“멘티님과 마찬가지로 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마침 이번 기회를 통해 시간 관리 능력에 대한 특강이 있었기에 멘티님과 함께 참여해 보기로 했다.” (멘토링 66팀, 4회기 보고서)

3) 지속적 목표 관리

멘토와 멘티는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확인을 실시했다. 멘토와 멘티가 궁극적으로 초기에 서로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 중

하나였기에, 지속해서 목표를 관리하고 점검했다. 상호 확인을 통해 확인하기도 하고 필요할 경우 지인들을 활용해 목표를 관리하기도 했다.

“첫 번째 목표인 ‘온라인 과제 밀리지 않고 다하기’ 에서 서로 매주 금요일마다 카톡으로 자신의 사이버캠퍼스 과제란을 캡처한 것을 업로드하여 확인했다.” (멘토링 3팀, 2회기 보고서)

“멘토로써 멘티가 이러한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멘티의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수업 시간 20분 전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 (멘토링 23팀 멘토, 5회기 보고서)

“출석을 유지를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멘토가 연락해 주며 출결이나 일정을 파악하여 확인해 주었고, 수업시간 후에 필기 내용을 확인하며 집중하였는지 확인했다.” (멘토링 36팀, 3회기 보고서)

4) 맞춤형 솔루션

멘토링을 진행하며 멘토와 멘티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 자연스럽게 이끌기도 하고, 진심어린 조언을 전달하기도 하는 등 학업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친 안성맞춤 솔루션을 제공했다.

“멘티가 과제를 작성하면 저는 오탈자나 기타 필요한 부분만 조언을 해주는 등 과제 전반적인 작성을 멘티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했다.” (멘토링 26팀, 5회기 보고서)

“활동성이 좋은 나에게 스트레스 해소 및 기분 전환으로 학업 시간 이외에 취미로 운동을 하자고 추천해 주었다.” (멘토링 67팀 멘티, 5회기 보고서)

“학업에 최선을 다해본 적이 없고, 집중력도 떨어져 어떤 방식으로 공부

를 해야 할지도 몰랐던 나에게 멘토가 기본에만 충실하자, 욕심 부리기보다는 적은 양을 천천히 꾸준히 하자라고 조언해 주었다.” (멘토링 72팀 멘티, 5회기 보고서)

5) 적극적 참여

멘토와 멘티는 멘토링 중반을 넘어서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멘토의 경우 먼저 멘티에게 다가가기도 하고, 멘티의 도움 요청에 열렬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멘티의 경우 자발적으로 활동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서로의 적극적인 모습에 안도하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었다.

“멘티 친구도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공모전에도 나가려는 열정적인 모습도 보여서 함께 재밌게 활동할 수 있었다.” (멘토링 9팀 멘토, 5회기 보고서)

“자기 시험공부 빼면서까지 멘티인 나에게 최선을 다해 알려주는 모습이 너무 고맙다.” (멘토링 16팀 멘티, 5회기 보고서)

“멘토는 기다렸다는 듯이 3회기를 작성하는 겸 본인의 노하우를 작성하는 겸 나를 따라서 스터디카페나 독서실 같은 곳을 가보는 것이 어떨겠냐며 물심양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다 도와줬다.” (멘토링 25팀 멘티, 5회기 보고서)

“멘티가 의욕적으로 멘토가 하고자 하는 주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실행력으로 멘토 활동을 하면서 크게 힘들지 않았다.” (멘토링 31팀, 5회기 보고서)

6) 상호 고민 공유

멘토와 멘티는 서로 개인적인 고민과 걱정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멘토와 멘티는 자기를 개방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며, 단순히 고민을 공유하는 것을 넘

어 아닌 부족한 점, 아쉬운 부분 등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였다. 또한 서로가 지닌 고민을 알게 되면서 상대방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길잡이가 되기도 했다.

“상담을 시작하며 지도교수님이신 000 교수님께서서는 학사경고의 이유를 물어보셨고 나는 반수를 하며 받게 되었다고 설명드렸다.” (멘토링 3팀 멘티, 2회기 보고서)

“멘티가 평소에 어려워하는 시간 관리 및 집중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는지 서로 이야기하였고 어떤 점이 문제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였다.” (멘토링 26팀, 3회기 보고서)

“멘티는 평소 공부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자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벌어져 학점이 떨어진 상태였다.” (멘토링 56팀 멘토, 5회기 보고서)

“나의 단점은 마무리가 약한 것이다. 단점을 멘토와 공유하고 바라는 점을 대화해 가며 이번 피어락을 통해 많은 것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었다.” (멘토링 78팀 멘티, 5회기 보고서)

7) 대학 정보 공유

멘토와 멘티는 서로가 지닌 대학 정보를 공유했다. 학교 프로그램, 학사 정보, 전공 등 멘토가 알고 있는 대학 정보를 공유하고, 멘티가 잘 아는 것을 멘토에게 설명해 주기도 했다.

“카페에서 만나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했다. 대학의 많은 장학금 제도, 편의 기관의 존재, 프로그램 등. (중략) 멘티는 모든 설명을 들으면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있냐고 신기해했다.” (멘토링 5팀, 3회기 보고서)

“멘토가 내년에 전공을 듣는 멘티를 위해 학과에서 진출할 수 있는 분야를 설명하고, 어떤 방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고를 수 있는지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다.” (멘토링 31팀 멘토, 4회기 보고서)

“(멘토가)코로나가 막 시작할 때 입학한 코로나 학번이었다. 그래서 내가 학교에 시설이나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았다. 이런 부분들은 내가 알려주었다.” (멘토링 60팀 멘티, 5회기 보고서)

8) 응원과 지지

멘토는 목표를 이뤄나가는 멘티를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었으며, 멘티는 이러한 멘토로부터 지지받는 느낌을 경험했다. 응원하는 이유는 다양했다. 목표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혹은 노력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박수를 보내기 위해서 등. 멘티는 이러한 멘토의 응원과 격려로부터 도움을 받아 더욱 나아갈 수 있었다.

“처음엔 어려움을 많이 느꼈지만 멘토가 많이 도와주고 응원해 줘서 많은 도움이 됐다.” (멘토링 34팀 멘티, 5회기 보고서)

“스스로 공부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멘토의 큰 격려와 지지로 공부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다.” (멘토링 39팀 멘티, 5회기 보고서)

“종종 잊어버리시는 날에는 응원과 격려를 함께 하며 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드렸다.” (멘토링 45팀 멘토, 5회기 보고서)

“멘티께서 초반에 세운 목표를 차근차근 이뤄나가려고 노력 중이신데 옆에서 더욱 응원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멘토링 56팀 멘토, 2회기 보고서)

9) 또래 협력학습

멘토와 멘티는 같이 협력해서 공부를 진행했다. 멘토와 멘티는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고 알려주기도 하고, 서로 고민해 답을 찾아가기도 했다. 혼자 고민하거나 교수님을 찾아가는 것보다 바로 옆에서 함께하는 팀원에게 물어보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더욱 수월했다.

“현재 수강하고 있는 학과 과목을 일주일간 멘티가 스스로 자율 학습을 한 후, 특히 어려워하는 2과목을 선정하였다. 전공과목의 기본 개념에 대해 알려준 후 멘티가 모르는 점을 질문받는 식으로 진행했다.” (멘토링 13팀, 5회기 보고서)

“멘토에게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을 질문하여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줄어들었다.” (멘토링 26팀 멘티, 3회기 보고서)

“서로서로 과제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 공부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고 알려주기도 했다.” (멘토링 77팀, 3회기 보고서)

10) 꾸준한 시도

멘토와 멘티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변화를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꾸준하게 시도했다. 멘토의 경우 거듭 연락을 취하기도 하고, 억지로라도 끌어내어 어떻게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애썼다. 멘티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멘티도 사람인지라 친구들이랑 놀고 늦게 잠이 드는 날에는 아침에 늦잠을 잤다. 그럴 때마다 멘토인 내가 다 조마조마하여 핸드폰으로 전화를 몇 번 해서 깨운 적이 있었다.” (멘토링 1팀 멘토, 5회기 보고서)

” 피어락 활동을 하면서 친구와 연락이 잘 안 되는 것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락을 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멘토링 14팀 멘토, 5회기 보고서)

“시험 기간이 끝난지가 얼마 되지 않아 힘들었지만, 최대한 일주일에 10시간을 채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도 10시간 언저리를 채웠습니다.” (멘토링 27팀 멘티, 3회기 보고서)

“수업이 끝난 후 공강 시간에 도서관이나 카페를 방문해서 그날 배운 내용을 복습하며 꾸준하게 공부하였습니다.” (멘토링 28팀 멘티, 5회기 보고서)

11) 상기 목표 다짐

멘토와 멘티는 여러 활동을 진행하며 발생한 갈등 상황 속에서 서로의 목표를 다시 한번 다짐했다. 서목표의 상기를 통해 다시금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다.

“생각이 달라 부딪치는 일도 있었지만 결국 목표를 향하는 마음은 같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멘토링 2팀 멘티, 5회기 보고서)

“멘토, 멘티 둘 다 못 지키고 있었고 공부를 같이 하면서 그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서로 잘 지켜주기로 약속했다.” (멘토링 22팀, 3회기 보고서)

“문득 ‘이 프로그램이 멘티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됐다. 서로 다른 상황에 대한 이해와 멘토의 리더쉽, 지식 전수 방법 등 멘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익혀나갈 수 있는 경험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후 내 행동도 바뀌게 된 것 같다.” (멘토링 25팀 멘토, 5회기 보고서)

12) 일정 조율

멘토와 멘티는 활동을 위해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대학 시험, 기타 자격증 시험 등 일정을 공유하고 상대방의 현재 상황에 따라 맞춰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기말고사 시험 기간에는 둘이 알바 안 하는 날 위주로 시간을 맞춰서 졸을 켜고 공부를 했다.” (멘토링 14팀 멘티, 5회기 보고서)

“멘티가 기사 시험 일정을 앞두고 있어 토익 공부는 잠깐 미루고 기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멘토링 59팀, 4회기 보고서)

“시험 기간에 멘토와 멘티가 시간을 맞추어 만날 장소를 정했다. 대부분 둘 다 수업이 끝난 이후의 시간대로 정했다.” (멘토링 64팀, 4회기 보고서)

13) 현실적인 목표로 변경

멘토와 멘티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차선책을 통해 수행 가능하도록 목표를 변경했다. 멘티들은 앞서 세웠던 목표가 지나치게 높아 어려움을 호소하던 것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거나, 차선책을 통해 돌아가더라도 오랜 시간 지속 가능한 방안들을 발견하고 이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변경한 후 이전에 비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멘토도 이러한 멘티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최소한의 목표를 통해 조금씩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기존 방법은 절대적으로 지속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계획을 조금 수정해서 수업이 끝난 뒤 공부를 마치고, 가볍게 집 근처에 있는 □□ 공원을 천천히 걸거나 00 공원을 한 바퀴 도는 식으로 운동을 진행했다.” (멘토링 18팀 멘티, 4회기 보고서)

“3시간을 한 번에 하는 건 너무 어렵고, 공부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주 2회 3시간에서 주 3회 2시간으로 바꾸었는데 오히려 좋다. 처음에는 주에 3시간씩 2번이라 많게 느껴져서 막막했지만, 계획을 세우고 수업 시간에 맞춰 3시간을 나눠서 공부하니깐 할만했다.” (멘토링 39팀 멘티, 4회

기 보고서)

“평일에 일찍 자기와 공부하기에 대한 목표는 설정한 이후 꾸준히 잘 이루신 것을 함께 확인했으나, to do list 작성의 경우에는 꾸준히 실천하는 것을 비교적 어려워하신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최소한의 목표만을 설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늘려가는 것으로 목표에 가깝게 달성할 수 있었다.” (멘토링 66팀 멘토, 5회기 보고서)

(5) 탄탄한 협력관계 구축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 가며 협력관계가 탄탄하게 구축된 단계이다. 멘토와 멘티는 더욱 단단한 협력관계 속에서 다양한 감정을 느꼈으며 여러 변화를 깨달았다. 초기 멘토링 구조화에서 씨를 뿌린 것을 시작으로 여러 노력으로 발아하고 마침내 개화한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1) 상호 이해

멘토와 멘티는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유사한 부분을 공유하며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도 했으며, 나와 다른 점을 이해하며 오히려 상대방을 더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멘토의 경우 멘티의 입장에 서서 멘티를 바라보고자 하는 노력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진짜 개인마다 집중하는 곳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멘토는 땀 뚫려있고 중간에 이야기를 하는 곳이 좋다고 하지만, 멘티는 이런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멘토링 1팀 멘토, 3회기 보고서)

” 나의 경우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활동하는 것도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서 매우 개방적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다는 사실에 다른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개인 단위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찾아보게 되었다. “ (멘토링 11팀 멘토, 4회기 보고서)

“직접 멘티의 입장이 되어 앞으로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고민하는 태도를 보였다. (멘토링 43팀 멘토, 5회기 보고서)

“멘티, 멘토 서로 상의 중에 현재 4학년이기 때문에 졸업 후의 진로에 관하여 ‘걱정, 불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생각이 많은 시기’라는 결론이 나왔다.” (멘토링 79팀, 4회기 보고서)

2) 소속감

멘토와 멘티는 서로가 공동체에 속해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멘토-멘티 관계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 주는 것을 통한 소속감은 물론, 프로그램 전반적인 활동을 통해 여러 사람을 만나고 지지자원을 경험하며 지탱해 주는 느낌을 경험했다.

“코로나여서 학교 활동을 제대로 못 한 20학번 멘토에게, 위 활동을 하면서 멘토의 친구들도 함께 만나면서 마지막 4학년의 재미있는 학교생활을 보내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멘토링 1팀 멘토, 5회기 보고서)

“전에는 혼자서 교내 프로그램에 참석하였는데 이번에는 친구와 함께 교내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서 뿌듯했다.” (멘토링 14팀 멘토, 5회기 보고서)

“그럴 때마다 지금 수강하는 프로그램, 멘토와의 대화, 교수님과의 면담 등 나를 붙잡아주고 지탱해 주는 요소들이 멈춰 서지 않고 더 나아가게 하는 큰 요인이었다.” (멘토링 25팀 멘티, 5회기 보고서)

“나에게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구나 싶고, 너무나도 힘든 대학생황에서 많은 도움과 내 옆에서 지켜봐 주고 많이 도와준 사람은 멘토였다.” (멘토링 52팀 멘티, 5회기 보고서)

3) 대학생 생활 경험 공유

멘토와 멘티는 그간 대학에 다니며 직접 체험하고 깨달은 점들을 기반으로 자기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멘토가 자신의 선 경험을 살려 멘티에게 관련된 사항을 공유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학생 생활 경험을 공유하는 것에는 학교에 다니며 겪는 일들과 그에 느끼는 감정을 공유하는 것도 포함됐다.

“9월, 10월에 만났을 때보다 학교생활은 어떤지, 더 행복해졌는지, 고민은 있는지 궁금증이나 축제는 즐겼는지 이야기 나눴다.” (멘토링 2팀, 3회기 보고서)

“멘토는 현재 6학기를 재학하면서 여러 비교과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지금 활동 중인 멘토링 프로그램, 취업 프로그램, MBTI 검사와 진로적성검사와 같은 심리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멘티에게 프로그램 추천을 해주었다.” (멘토링 29팀 멘토, 4회기 보고서)

“그동안 공부하며 경험했던 어려운 부분과 자주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 공유하여 멘티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멘토링 38팀 멘토, 5회기 보고서)

“멘토의 지도교수 면담 경험을 나누며 멘토가 지도교수 면담을 하기 위해 어떻게 문의를 드렸고 어떤 준비를 했는지 공유했다.” (멘토링 61팀, 3회기 보고서)

4) 유대감

멘토와 멘티는 서로의 관계가 끈끈해지는 것을 경험했으며, 유대감이 생겨났다. 어색한 관계에서 발전하며 친밀감을 느끼고 원래 알던 사이였지만 색다른 경험을 통해 알아가는 점이 많아졌다.

“몇몇 과목은 F가 예상되고, 몇몇 과목은 D가 예상된다. 그래서 더욱 멘

티가 안타까웠다. 모든 과정을 옆에서 보니 나는 멘티가 더 안타까웠던 것 같다.” (멘토링 5팀 멘토, 5회기 보고서)

“멘티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한 사이였다. 같은 날 같은 공간, 약 2년 동안 함께 알고 지내며 다양한 추억을 쌓았었다. 운동, 야자, 게임 등 많은 순간 순간이 기억에 남아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억의 파편 속에서 멘티와의 개인적인 기억은 사실 그렇게 많진 않다. 이번 활동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멘티를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멘토링 75팀 멘토, 5회기 보고서)

“처음 만났을 땐 어색함 가득하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애인 이야기를 할 만큼 편한 사이가 됐고 말을 놓고 대화를 할 만큼 어색함도 풀린 것 같다.” (멘토링 2팀 멘티, 5회기 보고서)

“또한 멘토와 같은 과, 같은 학년이다 보니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많이 친해졌고, 같은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멘토링 47팀 멘티, 5회기 보고서)

5) 고마움

멘토와 멘티는 서로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멘토의 경우 자신을 믿고 함께해 주며 변화한 것에 고마움을 느꼈으며, 멘티의 경우 자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준 멘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느꼈다.

“처음에, 그리고 지금도 미흡할지 모르는 나를 따라와 준 멘티에게 정말 고맙고 대견한 감정이 듭니다.” (멘토링 48팀 멘토, 5회기 보고서)

“아직 배우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저를 믿고 함께해 주신 멘티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멘토링 62팀 멘토, 5회기 보고서)

“저를 성실하게 만들기 위해 불타는 노력을 했던 멘토 00이의 피나는 투지에 박수를 보냅니다.” (멘토링 57팀 멘티, 5회기 보고서)

“처음엔 부족한 나였지만 항상 곁에서 응원해 주고, 뭐든 도와주겠다는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멘토 자신도 바뀐 와중에 나를 위해 항상 임해준 것 또한 너무 감사하고 나를 바꾸는 원동력이라 생각한다.” (멘토링 67팀 멘티, 5회기 보고서).

6) 함께 성장

멘토와 멘티는 비슷한 환경을 공유하고, 공부하고, 이야기 나누는 과정들을 거쳐 함께 발전해 나갔음을 경험했다. 서로의 모습을 보며 동기부여를 얻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함께 세우는 등 시너지 효과가 일어났음을 느꼈다.

“서로 맞는 공부 환경과 방법까지 찾아가면서 서로에게 정말 큰 발전을 가져다줬다.” (멘토링 59팀 멘토, 5회기 보고서)

“사실 둘 다 미래에 대해 어떠한 방향성이 존재하지는 않았다. (중략) 서로가 잘 몰랐던 각각의 과의 미래에 대해 조금은 더 알 수 있게 되었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게 됐다.” (멘토링 74팀, 5회기 보고서)

“한 공간에 있진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점이 좋았다.” (멘토링 14팀 멘티, 5회기 보고서)

“멘토와 같이 모의 면접을 하면서 후에 취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고 언어 능력이 향상됨을 느꼈다.” (멘토링 67팀 멘티, 4회기 보고서)

7) 관계 유지 열망

멘토와 멘티는 프로그램이 끝나도 이러한 관계가 유지되길 바랐다. 멘토-멘티 관계에서 시작한 관계가 대학생활 동안 내내 지속되기를 소망하고 열망했다. 학교생활 외에도 여러 가지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인생의 동반자로서 함께 걸어갈길 바라고 있다.

“같은 대학교 학우로서 계속해서 열심히 목표를 가지고 학교생활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함께 여름방학 계획을 세워보기로 했습니다.” (멘토링 17팀 멘토, 5회기 보고서)

” 이제 피어락 활동은 종료되었지만, 앞으로도 멘티분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지 꾸준히 확인도 할 예정이고 소중한 인연을 계속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멘토링 18팀 멘토, 5회기 보고서)

“서로 도와주며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도움을 줄 것을 약속하였다.” (멘토링 59팀, 5회기 보고서)

8) 점진적 행동 변화

멘토와 멘티는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경험했다. 정해진 목표를 달성했는지 인증하기 위해서, 혹은 멘토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해서 등. 행동으로 실천하다 보니 몸이 점차 적응됐고, 어떤 경우는 마음이 함께 동하기도 했다.

“도서관이나 열람실 등 혼자라면 가보지 않았을 곳을 멘토가 이끌어 같이 가보았다. 억지로 도착해 이것저것 해보니 왜 사람들이 이런 곳에 오는지 와닿게 됐다.” (멘토링 25팀, 3회기 보고서)

“반강제적으로 앉게 된 것이지만 점점 잘 해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 계속 버티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부량과 그에 해당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멘토링 64팀, 3회기 보고서)

“멘토가 억지로라도 공부를 시켜주고 수업에 참여시켜 줘서 이제 적응이 된 것 같다.” (멘토링 79팀, 2회기 보고서)

9) 상호 인식 변화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와 멘티는 주어진 역할 외에도 서로의 다양한 역할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인식이 변화되기도 했다. 멘토의 경우 기존의 멘티에게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멘티의 경우 멘토에게서 동기, 친구, 선생님 등 여러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저도 00이의 걸모습과 하는 행동이 깔렁댄다고 불량한 학생으로 생각했던 것에서 제 잘못을 알게 되었습니다.” (멘토링 42팀 멘토, 5회기 보고서)

“결과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 이전의 학기들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전혀 다른 멘티를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의 멘티를 볼 수 있었고, 학업에 열중하고 더 진전된 멘티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기에 이번 프로그램에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멘토링 57팀 멘토, 5회기 보고서)

“멘토의 존재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친구일 때는 그냥 경쟁자의 입장이었다면 학년도 달라지고 경험이 많아지면서 이 친구는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멘토링 48팀 멘티, 5회기 보고서).

“사회적 지지자로서 또 동기와 친구의 입장에서. 멘토는 항상 옆에서 친구이면서도 선생님 같았고...” (멘토링 52팀 멘티, 5회기 보고서)

V. 논의 및 제언

성적경고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여러 대학에서 개발 및 운영되고 있지만,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중에서도 멘토와 멘티 경험을 함께 살펴본 연구가 드물뿐더러 멘토링에서 중요한 요인인 상호작용에 대해 깊이 있는 탐색을 진행한 연구는 부재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적경고자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험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성적경고자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멘티 경험, 멘토 경험, 상호작용 경험을 도출하였으며, 연결망 분석을 통해 경험 간 관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멘티의 참여 경험 코드체계를 살펴본 결과 세 가지 상위범주에서 16개의 하위 구성요인이 드러났다. 핵심 키워드 도출을 위해 코드 구절 빈도를 계산한 결과, 멘티의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서 드러난 핵심 키워드는 ‘학습태도 개선’, ‘자기효능감 증진’, ‘변화에 따른 뿌듯함’, ‘학습환경 탐색’, ‘문제 해결방안 수용 노력’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여 멘티 경험에서 도출된 코드의 구조를 함께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핵심 키워드 중 ‘학습태도 개선’, ‘자기효능감 증진’, ‘변화에 따른 뿌듯함’, ‘학습환경 탐색’은 동일 클러스터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멘티가 멘토와 전문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학습 스타일을 점검하면서 학습 태도가 개선되었으며, 그로 인해 학습 의욕이 생기고 조금씩 학습 성과가 나타남으로써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변화에 대한 자부심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멘티들이 직접 작성한 활동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미처 몰랐던 공부 환경의 중요성을 알게 됨’, ‘노력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뿌듯함’ 등을 경험했으며, 이를 통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과거와 달라진 학습태도’ 등의 효과를 얻었음을 진술하고 있다. 이는 김나미 외(2015)의 연구에서 멘티들이 성적경고자 멘토링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형성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멘티 경험에서 두드러지는 핵심 키워드는 ‘학습태도 개선’으로 이는 ‘긍정적 생활습관 형성’과 밀접한 연관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멘티들이 활동 보고서에 작성한 내용에 따르면 ‘학습을 위한 생활습관 구축’, ‘효율적인 개인 루틴 형성’,

‘1차원적인 쾌락으로부터 멀어짐’ 등의 효과가 있음을 보고했다. 이는 생활습관의 개선을 통해 학습 태도가 개선되거나 학업을 위해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도 하는 등 두 영역이 상호호혜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이러한 결과는 멘티들이 프로그램 신청한 동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코드맵 결과 ‘성적경고 탈출 희망’과 ‘생활습관 개선 희망’이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으며, ‘무너진 생활습관의 복구’, ‘계획적인 생활 희망’ 등 프로그램을 통해 성적경고 탈출과 동시에 생활습관이 개선되길 희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생활습관 개선이 성적경고 극복의 주요한 변인이라고 제시한 결과와 일치한다(이지은, 황현우, 2018; 장애경, 양지웅, 2013). 그러나 기존 성적경고자 멘토링 프로그램에서는 생활습관이 아닌 심리 및 정서적 지지 기능의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강대식, 2021; 구진순, 외 2013; 김나미, 김효원, 2015). 멘토링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인 멘티의 성적경고 탈출을 위해 멘토링 초기에 멘티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멘토와 멘티가 함께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 설정과 실행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멘티 경험에서 드러난 결과에 따르면 ‘문제해결 수용 노력’은 ‘멘토의 권유’와 ‘성적경고 탈출 희망’ 두 코드와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적경고를 받은 멘티가 멘토의 권유에 의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지만, 멘토링이 진행되면서 스스로 책임감을 수용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동기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성적경고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멘토의 제안을 통해 참여하게 됐다는 김옥분, 김혜진(201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결국 멘티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멘토를 비롯한 주변 인물들이 멘티에게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멘티 또한 성적경고를 탈출하기 위해서 멘토나 주변 조언을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멘티들이 지도교수 상담을 통해 새로운 대인관계 경험과 진로 효능감이 증진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멘티들이 프로그램 활동 요소 중 하나인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통해 진로 계획이 구체화 되고 자신감이 증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멘티에게 있어 지도교수와의 상담이 의미 있는 경험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 멘토링 프로그램 중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 진로, 정서적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권해수, 2016; 박덕희, 2017)과 일치한다.

종합하자면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성적경고자인 멘티들은 성적경고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동기를 시작으로 책임감 있게 자신의 문제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노력을 경험했으며, 여러 활동 중 특히 지도교수 상담, 학습환경 탐색과 같은 경험을 유의하게 인지했다. 이러한 경험은 학습태도 증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성적경고로부터 탈출하려면 단순히 학업 기술 및 전략에 대한 안내를 통해서 개선되는 것이 아닌 환경, 생활습관, 지도교수와 같은 외부 지지자원 등 다양한 요인들이 관련될 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성적경고자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토의 경험 코드체계를 살펴본 결과 세 개의 상위범주 아래 17개의 하위 구성요인이 나타났다. 코드 구절 빈도를 통해 핵심 키워드를 파악한 결과 멘토의 참여 경험에서 드러난 핵심 키워드는 ‘멘티를 도우며 성장’, ‘페이스 메이커’, ‘공부습관 재정비’, ‘멘티의 변화에 따른 뿌듯함’, ‘나를 되돌아봄’으로 나타났다. 멘토 경험에서 드러난 구성요인을 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여 코드 간 구조를 함께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핵심 키워드 중 ‘멘티를 도우며 성장’, ‘공부습관 재정비’, ‘멘티의 변화에 따른 뿌듯함’, ‘나를 되돌아봄’은 동일 클러스터에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멘토들이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멘티와 함께하면서 자신에 대한 성찰을 경험하고, 멘티의 변화에 따른 성취감을 경험하며 개인적인 성장 및 학업능력에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멘토들이 활동 보고서에 작성한 내용을 살펴보면, ‘고민을 통한 성찰’, ‘스스로를 점검하는 기회’, ‘멘티의 변화에 안심’, ‘빠른 습득에 따른 변화에 뿌듯함’ 등의 경험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를 통해 ‘기존 학습교수’, ‘복습을 통한 재정비’, ‘멘토와 상호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에서 성장’, ‘멘티를 위한 행동으로부터 발전’ 등의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성적경고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학습 스타일을 확립할 수 있었다는 연구와 일치한다(구진순, 고영준, 백선향, 2013). 즉 멘토링 프로그램이 성적경고자인 멘티를 위한 프로그램이긴 하나 멘토의 학습능력 및 개인적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멘토 경험에서 두드러진 핵심 코드는 ‘멘티를 도우며 성장’이다. 이는 ‘멘티의 변화에 따른 뿌듯함’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보였으며, 해당 코드는 ‘멘티의 열정에 자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멘티의 열정에 자극’에서 멘토들이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멘티의 자발성에 반성’, ‘멘티의 적극성에 동기부여’ 등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멘토들이 멘티의 열정에 자극을 받았다

는 점이다. 일련의 연구들(구진순, 고영준, 백설향, 2013; 김나미, 김효원, 박완성, 2014)에서 멘토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성취감을 경험하였음을 보고하였으나, 어떠한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탐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 멘토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궁극적인 요인은 멘티와의 관계였으며, 멘티의 열정과 변화가 멘토의 성장 요인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멘토 경험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페이스 메이커’의 경우 ‘멘티의 변화 희망’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그 외의 코드와는 동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멘토들이 초기에 단순히 멘티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앞서서 끌어주는 역할만 하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멘토링 후반에 접어들수록 일방적인 도움 제공을 넘어 오히려 멘티를 통해 멘토 본인이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멘토는 멘토링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자기효능감 등이 향상된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의사소통 능력에 효과적이며(조보람, 2020), 멘토의 대인관계 및 공감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권명옥 등, 2017)와 리더십 역량을 향상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김나영, 2015)와 일치한다.

종합하자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토들은 최초로 단순히 일방적으로 멘티를 위한 도움을 제공하고, 자신에게 의미있는 경험을 마련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막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멘티의 변화를 옆에서 직접 지켜보며 자신에 대해 성찰했으며, 타인의 변화에 따른 성취감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학업 및 개인 내적인 성장을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상호작용의 경험은 5개의 상위범주 아래 38개의 구성요인이 도출됐으며, 코드 구절 빈도를 통해 핵심 키워드를 파악한 결과 상호작용 경험에서 드러난 핵심 키워드는 ‘동행’, ‘꾸준한 의사소통’, ‘상호 이해’, ‘이전 습관으로 회귀’, ‘학습 방법 공유’로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여 상호작용 경험에서 도출된 코드의 구조를 함께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동행’, ‘꾸준한 의사소통’, ‘상호 이해’가 동일 클러스터에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상호작용 경험에서 두드러진 핵심 코드는 ‘동행’이었다. ‘동행’은 ‘꾸준한 의사소통’과 높은 동시성이 있으며, ‘꾸준한 의사소통’은 ‘꾸준한 목표관리’와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자들의 활동 보고서를 살펴보면 멘토와 멘티는 단순히 학업을 함께하는 것 외에도 상담, 교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에 함께했다고 한다. 이처럼 멘토와 멘티는 학내 여러 활동을 하기 위해 꾸준히 소통했

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멘토와 멘티가 함께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을 함께하는 것이 멘티의 성적경고 극복에 효과적인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전 습관으로 회귀’의 경우 ‘점진적 행동 변화’와 ‘꾸준한 시도’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멘토와 멘티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멘토링 관계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만 이와 동시에 과거 형성된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멘토와 멘티가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시험 이후 늘어난 마음’, ‘노력과 반비례하는 실천’ 등이 드러났다. 즉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적경고에서 탈출하기 위해 멘토와 멘티가 ‘꾸준한 시도’를 하였으며 점차 변해가는 모습을 인식하고 이를 수용하면서 ‘점진적 행동 변화’를 경험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해당 클러스터에서 데이터 내 유사성이 높은 코드에는 ‘유대감’과 ‘소속감’이 있다. 해당 코드들은 ‘고마움’, ‘함께 성장’, ‘상호 인식 변화’와 높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멘토와 멘티의 유대감 및 소속감을 상승시킨다면 이전 습관에서 탈피하는 데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기존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 검증 연구에서도 멘티와 멘티의 사회적·정서적 지지를 향상시키는 데 주목하였다(강대식, 2021; 구진순 외, 2013; 김나미, 김효원, 2015). 그러나 어떠한 과정 경험을 통해 이러한 지지 경험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멘토와 멘티는 멘토링 과정 중에 ‘이전 습관으로 회귀’, ‘일정 관리 어려움’, ‘지나치게 높은 목표’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유대감’과 ‘소속감’이 상승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 상호작용 경험에서 도출된 결과를 살펴보면 ‘학습방법 공유’가 ‘적극적 노력’과 ‘활발한 의사소통’과 높은 관련을 보였다. 특히 ‘학습방법 공유’가 전체 하위코드 내에서 다른 코드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멘토와 멘티가 처음 학습방법을 공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학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초기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접촉하고 정보를 공유하는지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경험에 따르면 멘토의 경우 자신이 기존에 습득한 정보를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주고자 하였으며, 멘티의 경우 이러한 멘토의 정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다짐함으로써 초기에 협력관계가 형성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멘토링 초기 단계에서 멘토와 멘티가 서로 학습방법을 공유하고 활발한 의사소통을 한 것이 멘토링 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하자면 멘토와 멘티는 초기에 상호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점검 및 인증의 방식을 사용했으며, 이후 학습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멘토와 멘티 모두 활발하게 소통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목표관리, 동행 등을 통해 멘토링 관계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과거 형성된 습관으로 자꾸만 돌아가게 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멘토와 멘티 모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느리지만 천천히 함께 행동 변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은 멘토와 멘티 사이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증진 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이러한 효과는 멘토와 멘티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시도하고 목표를 다짐으로써 함께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기술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성적경고자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멘토링 초기 단계에서부터 멘티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 결과에서 멘티들은 성적경고 탈출과 함께 자신의 생활습관이 개선되길 원했으며, 실제로 생활습관이 개선되면서 학업역량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멘티들이 성적경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학업능력 증진과 함께 생활습관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프로그램 시작 전 사전 조사를 통해 해당 어려움을 경험하는 참여자들을 선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시간을 갖거나, 필요하다면 개인 상담이나 심리교육을 추가하여 이에 초점을 맞춘 개입 전략을 실시한다면 프로그램의 효과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문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결과 멘토와 멘티의 관계의 질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일정 관리 어려움’, ‘이전 습관으로 회귀’, ‘지나치게 높은 목표’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멘티들의 성적경고 탈출과 프로그램 전체 효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멘토링 과정 중에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상담전문가의 적절한 개입이 이뤄진다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멘토와 멘티가 즉각적으로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프로그램 중간에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멘토와 멘티 간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멘토와 멘티의 상호작용은 멘토링 관계의 질은 물론, 멘토링 프로그램 전체 효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 상호작용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요인은 '동행'이었는데, 이는 참여자들이 학업 개선을 위한 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관계의 질을 촉진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참여자들은 개인적인 연락을 자주 주고받고, 대학 생활을 동행하여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멘토와 멘티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통해 멘토와 멘티가 자주 연락을 자주 주고받고, 식당, 도서관 등 대학 생활 공간을 동행하는 등 함께 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적경고자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토와 멘티의 과정 경험과 상호작용 경험에 대한 파악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상호작용은 멘토링 효과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나, 기존의 연구들은 멘토와 멘티의 경험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멘토링의 상호작용 효과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멘토와 멘티의 경험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총체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상호작용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둘째, 실제 대학상담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 자료를 통해 다양한 학생들의 생생한 참여 경험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여 프로그램의 효과 및 경험의 일반화가 어렵다는 점이 있었다(김나미, 김효원, 박완성, 2014; 박덕희, 201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 대학생담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도출된 자료를 통해 다수 학생들의 참여 경험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더욱 다채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셋째, 객관적인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질적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의 경우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질적분석의 방법을 활용하여 경험을 파악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은 참여자들의 경험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의미를 간과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구진순, 고영준, 백설향, 2013; 김나미, 김효원, 박완성, 2014; 김나미, 김효원, 2015; 김옥분, 김혜진, 201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통해 객관적인 방식으로 참여 경험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경험 간 구조적인 형태를 알아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성적경고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토와 멘티의 경험과 효과성을 총체적으로 확인하고, 더 나아가 멘토링 프로그램에서의 상호작용 효과를 파악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향후 성적경고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활동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선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성별, 학과, 학년과 같은 개인적 변인과 관련된 고려하지 못했다. 멘토와 멘티의 활동보고서를 살펴보면 멘토와 멘티가 친구 관계였을 때 멘티 변화를 더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었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멘토가 후배고 멘티가 선배인 경우 색다른 경험을 하는 등 멘토링 이전의 관계에 따라 멘토링 경험에 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멘토와 멘티의 전공이 같으면 학업적 도움을 더 제공할 수 있었으며, 다른 전공의 경우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 연구에서는 멘토와 멘티의 전공별 특성을 고려하거나 멘토링 이전의 관계에 따라 세분화하여 그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특정 대학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토와 멘티의 활동보고서가 분석 자료이었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성적경고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각 대학의 특성에 맞춰 개발 및 시행되고 있으므로 대학마다 특이 사항이 존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멘토링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멘토는 학점 3.0 이상, 5회기 활동이라는 구조화된 제한을 두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 프로그램 회기, 운영 기간, 활동 내용, 모집 기준 등을 고려하여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성적경고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개선에 있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성적경고자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토와 멘티의 경험과 효과성을 총체적으로 확인하고, 더 나아가 멘토링 프로그램에서의 상호작용 효과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성적경고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성적경고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개입이 더욱 다양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대식 (2021). 학사경고생 학습멘토링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 13(1), 73-79.
- 강순화, 이은경, 양난미 (2000). 학업우수 및 학업 부진 학생의 학업실태 분석을 통한 대학에서의 학업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심리치료**, 12(2), 221-242.
- 고운순 (2014). 보호관찰청소년을 위한 대학생의 집단멘토링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교정복지연구**, 35, 1-32.
- 구진순, 고영준, 백설향 (2013) 학업부진 대학생을 위한 또래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9(3), 433-445.
- 권명옥, 나정순, 정은경, 권영국, 홍혜정 (2017). 선후배 간 멘토링과 멘토 교육 프로그램이 국군간호사관생도의 적응, 스트레스, 대인관계능력 및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군진간호연구**, 35(1), 79-99.
- 권혜수 (2016).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한 학사경고 결정요인분석. **인간이해**, 37(2), 29-46.
- 김경준, 김지혜, 김영지 (2013), 청소년 또래멘토링의 효과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청소년연구**, 70, 287-321.
- 김나미, 김효원 (2015). 대학중도탈락자 예방을 위한 동료멘토링 활용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2), 875-900.
- 김나미, 김효원, 박완성 (2014). 학사경고 대학생을 위한 회복탄력성 프로그램과 동료 멘토링의 효과. **열린교육연구**, 22, 391-412.
- 김나영 (2015).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이 멘토의 리더십역량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한국교육공학회**, 2015(1), 95.
- 김소영, 윤채영 (2020). 지방사립대 학사경고자의 학업 어려움 원인에 대한 Q 방법론적 분석. **교육연구논총**, 41(4), 291-317.
- 김수미, 정정은 (2013). 대학생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1(4), 201-210.
- 김신애, 조항 (2022). 국내 대학생 학업지원 프로그램의 연구동향 및 효과성 메타분

- 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0), 705-720.
- 김옥분, 김혜진 (2018). 학사경고자의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경험 의미 분석-공과대 학생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2(5), 211-230.
- 김용학, 김영진 (2016). **사회연결망 분석**. 서울: 박영사
- 김은영 (2015). 시간 관리 훈련이 여대생의 시간 관리 행동, 학업적 지연행동, 의지 통제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 351-371.
- 김종두 (2016). 학사경고 학생들의 면담과 학업성취도.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논문지**, 10(3), 253-265.
- 김중임 (2020).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조산 경험 이야기의 시각화,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 26(3), 205-212.
- 남영옥, 이대형 (2016). 학사경고 원인 탐색을 위한 검사도구 개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8(3), 131-151.
- 노혜숙 (2019). 대학생 학사경고자의 학업부진 유형별 학습지원 요구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0), 1141-1164.
- 문미경 (2019). 일개 간호대학생의 시뮬레이션 기반 통합실습 경험 분석: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의 적용. **글로벌 건강과 간호**, 9(1), 10-18.
- 박덕희 (2017). 학업 저성취 대학생을 위한 일대일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효과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6), 375-402.
- 박은선, 권해수 (2023). 리더십 교양과목 운영 사례연구 -플립러닝 및 성찰일지 적용, **교양교육연구**, 17(3), 241-257.
- 배상환 (2014). **학습부진 대학생의 실태 및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형준 (2021). **MAXQDA로 질적연구 쉽게하기**. 박영스토리, 서울.
- 손수진 (2014). 프로테제에 대한 멘토의 신뢰가 멘토링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멘토링 관계에 대한 인지된 비용의 조절효과. **HRD 연구**, 16(3), 113-134.
- 신성만, 김정훈 (2012). 대학생 학사경고자들을 위한 동기강화 집단상담 프로그램. **대학생활연구**, 18(1), 75-109.
- 양명희 (2014). 대학생의 학습문제와 진단. **대학생활연구**, 8(2016), 139-153.
- 양미진, 이정희, 김범구, 박선영, 김혜영, 전예나 (2018). 후기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상담연구**, (209), 1-165.
- 오현수 (2013). 대학상담센터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실제. **대학생활연구**, 19(3),

19-35.

- 윤영란 (2021). 대학생 학사경고자를 위한 자기주도학습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7(8), 281-290.
- 이동성, 김영천 (2012).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근거이론의 철학적 배경과 방법론적 특성에 대한 고찰. **열린교육연구**, 20(2), 1-26.
- 이미경, 김희수 (2018). 학사경고자로 동료 튜터링을 경험한 대학생들의 삶의 내러티브 탐구-H대학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8), 593-621.
- 이봉숙 (2018). 학사경고를 받은 대학생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적 접근. **디지털융복합연구**, 16(1), 353-361.
- 이수상 (2012).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서울: 논형.
- 이슬이, 김은정 (2021). 대학생의 학사경고에 관한 원인 탐색 -P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4) 115-135.
- 이에다나, 고혜정 (2023).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학업저성취 대학생 관련 연구 동향 분석. **교육혁신연구**, 33(1), 343-361.
- 이옥화, 임연옥 (2010). 사이버대학에서의 동료지원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 재등록율, 학업성취도, 만족도 기준으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6(2), 315-339.
- 이용진, 양현정, 조성희 (2017). 학사경고생의 특성 변인과 교육적 개입 필요성에 대한 탐색. **교육방법연구**, 29(1), 161-184.
- 이윤경 (2018). **한국 새마을부녀회의 성공사례 특성분석-1970년대 새마을부녀회 수기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정, 송영수, 김지하, 오수현. (2020).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한 4년제 대학 중도 탈락률 예측 요인 탐색: 대학 수준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36(1), 191-219.
- 이은진, 김수연 (2020). ‘대한민국 1교시’ 방송소감문에 나타난 초등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통합교육연구**, 15(1), 61-85.
- 이정락, 정재훈, 유호웅, 이윤경, 김지인 (2022). **빅데이터와 텍스트네트워크 분석**. 서울: 영남대학교출판부.
- 이정락, 최외출 (2019). 인터뷰 연구에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방법의 적용 사례 : 새마을지도자 인터뷰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9(2), 145-172.
- 이지영 (2023).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학사경고자 대상 연구 동향. **문화와융합**,

- 45(1), 99-110.
- 이지은, 황현우 (2018). 대학생 학사경고자의 학업부진 유형 분류: 지방 사립 A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4(6), 327-351.
- 이지희, 신효정 (2017). 대학 입학 성적우수 학생들의 학사경고 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12(1), 183-201.
- 이하림 (2016). 대학생 학사경고자를 위한 동기강화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사례및실제**, 1(1), 57-82.
- 이혜은, 정태욱 (2020). 대학생의 학사경고와 극복경험에 대한 질적메타종합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5), 1123-1151.
- 임이랑 (2015). **학업저성취 대학생의 특성탐색 검사 문항개발 및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이랑 (2019). 국내 학업 저성취 대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교육혁신연구**, 29(3), 77-95.
- 장애경, 양지웅 (2013). 대학생의 학사경고 경험과 극복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4(2), 995-1013.
- 전보라, 강승희, 윤소정 (2015). 학사경고 경험 대학생의 학업적 특성과 집단 학습 컨설팅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9), 137-160.
- 정정애 (2021). 대학생 또래멘토 활동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한국청소년활동연구**, 7(3), 21-40.
- 조보람 (2020).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참여가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및 협동학습역량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8(5), 43-54.
- 주영아, 정희진, 황선희, 김영혜 (2013). 학업 저성취 대학생의 자기결정성 및 스트레스 대처전략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2), 85-115.
- 진용미 (2019). 멘토관계기능과 멘토역량 유형에 따른 학업성취도와 학업만족도의 차이. **미용예술경영연구**, 13(3), 35-51.
- 차재경, 이태훈 (2019). 대학생 학사경고자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및 지원방법 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3), 337-356.
- 최경민 (2021). 시간 관리를 활용한 대학의 온라인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례 연구: A 대학 학사경고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2), 809-823.

- 최주영, 김경희 (2018). 학습부진 대학생을 위한 학습동기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6(12), 87-95.
- 한정우 (2014).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대학생의 타문화 이해: 질적 방법을 통한 접근. *청소년학연구*, 21(12), 447-468.
- 황매향 (2006).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차이. *아시아교육연구*, 7(3), 187-203.
- Allen, T. D., & Eby, L. T. (2003). Relationship effectiveness for mentors: Factors associated with learning and quality. *Journal of Management*, 29(4), 469-486.
- Carley, K. M. (1997). Extracting team mental models through textual analysi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Behavior*, 18(S1), 533-558.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Corman, S. R., Kuhn, T., McPhee, R. D., & Dooley, K. J. (2002). Studying complex discursive systems. Centering resonance analysis of communica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8(2), 157-206.
- Danowski, J. A. (1993). *Network analysis of message content. Progress in communication sciences*, 12, 198-221.
- Hunt, D. M., & Michael, C. (1983). Mentorship: A career training and development tool.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8(3), 475 - 485.
- Lewis, S. C., Zamith, R., & Hermida, A. (2013). Content analysis in an era of big data: A hybrid approach to computational and manual method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57(1), 34-52.
- Murray, M. (2006). Innovations in performance improvement with mentoring. *Handbook of human performance technology*, 455-477.
- Paranyushkin, D. (2011). Identifying the pathways for meaning circulation using text network analysis. *Nodus Labs*, 26, 1-26.
- Popping, R. (2000). Text Analysis: What and Why. *Computerassisted Text Analysis*, 1-14.

- Ragins, B. R., Cotton, J. L., & Miller, J. S. (2000). Marginal mentoring: The effects of type of mentor, quality of relationship, and program design on work and career attitud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3*(6), 1177-1194.
- Sage, T. L. (2010). *Academic probation: How students navigate and make sense of their experiences*(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Stevens Point, College of Fine Arts and Communication).
- Serrano-Guerrero, J., Olivas, J. A., Romero, F. P., & Herrera-Viedma, E. (2015). Sentiment analysis: A review and comparative analysis of web services. *Information Sciences*, *311*, 18-38.
- Shea, G. (2001). *Mentoring how to develop successful mentor behaviors*. Crisp Learning.
- Smith, C. P., & Winterbottom, M. T. (1970).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on academic probation 1. *Journal of Personality*, *38*(3), 379-391.
- Smith-Mohamed, K. (1998). Role models, mentors, and Native students: Some implications for educators. *Canadian Journal of Native Education*, *22*(2), 238-259.

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본 안내문은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성적경고자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경험 분석’의 석사학위 논문에 필요한 자료 활용 동의서를 위한 안내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석사과정에 있는 최세희라고 합니다. 석사학위 논문 과정 중 C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 진행된 성적경고 대학생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분들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구하기 위하여 해당 기간 내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모든 학생에게 본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1. 연구 제목 :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성적경고자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경험 분석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 학사경고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토와 멘티의 활동 보고서 및 소감문을 질적분석 함으로써 멘토와 멘티의 경험과 상호작용 경험을 탐색한다.
3. 연구 대상 : C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성적경고자 멘토링 프로그램에 2022년 1학기, 2022년 2학기, 2023년 1학기 중 한 번이라도 참여한 학생
4. 동의서 수집 기간 : 2023년 8월 29일~ 2023년 9월 4일
5. 수집 내용
 - (1) 개인정보 : 성별, 연령, 학과, 학번
 - (2) 개인식별정보 : 이름, 연락처
 - (3) 프로그램 참여 활동 보고서(1-4회기) 및 최종보고서(5회기) 문서 자료
6. 개인정보의 비밀 보장

수집된 개인정보 및 개인식별정보는 자료수집 완료 및 사례 지급 이후 즉시 폐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활동 보고서(1-4회기) 및 최종보고서 문서 자료의 경우 연구참여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활동사진은 일절 사용되지 않으며,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전사 자료로 구성한 후 바로 폐기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연구자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될 때 귀하의 이름 및 기타 개인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7. 연구책임자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최세희

이메일 : 0000@naver.com

지도교수 :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권해수

*학생상담서에 제출한 보고서가 해당 연구자료로 활용되는 것에 동의하실 경우 본 설문에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 내 무응답 및 회신이 되지 않을 경우 자동 동의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 나는 위 설명서를 읽었으며, 이 연구에 참여를 위한 자료 활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① 동의합니다. ②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본 연구 참여 동의시 동의자 식별을 위한 정보입니다. 아래의 응답에 성실히 응답해 주세요.

① 본인의 학과를 작성해 주세요.

② 본인의 학번을 작성해 주세요.

부록 2 성적경고자 멘토링 프로그램 활동 보고서

활동 계획서_1회기 제출

(팀 명) 피어樂 활동 계획서

성적경고자	이름(학번)	사회적 지지자	이름(학번)
피어樂 활동 목표	피어락 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 피어락 참여를 통해 기대하는 점, 피어락 참여 이후 변화하길 바라는 점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성적경고자)의 역할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적 지지자)의 역할			

현/행/시/측 목표 설정_ 1회기 제출

목표 1	
예_ 늦잠으로 수업 결석하지 않기	
현: 현실 가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행: 행동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성적경고자의 행동, 사회적 지지자의 행동)
시: 시간	언제까지?
측: 측정방법	목표를 달성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목표 2	
현: 현실 가능	
행: 행동	
시: 시간	
측: 측정방법	

목표 3	
현: 현실 가능	
행: 행동	
시: 시간	
측: 측정방법	

활동 보고서_2, 3, 4, 5회기 제출(총 4회)

활동 보고서

주제						
팀 명						
회기	2	3	4	5	활동 일시	
성적경고자 이름(학번)					사회적 지지자 이름(학번)	

목 표 점 검	1회기에 설정한 현행시책 목표의 달성 여부 작성
회 기 보 고 서	<p>1. 활동 내용(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을 상세하게 적어주세요.)</p> <p>2. 활동 후 소감(팀원 모두 각각 적어주세요.)</p> <p>3. 증빙 사진</p>

(팀 명) 나에게 맞는 공부환경

성적경고자	이름(학번)	사회적 지지자	이름(학번)
-------	--------	---------	--------

번호	장소	특징 및 장단점
1	ex) 카페, 도서관, 독서실, 집, 강의실 등	-카페 규모별 차이 혹은 자리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도 됨. -장소별 특징과 장단점, 나의 집중 정도 등을 작성함.
2		
3		
4		
5		칸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최종 보고서

팀명			
성적경고자 이름(학번)		사회적 지지자 이름(학번)	
제출자 이름			

1회기에 설정한 목표의 수행 과정 및 성과(사회적 지지자는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한 자신의 역할과 수행 과정에서 자신이 얻은 성과), 피어락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점, 피어락 활동 중 자신에게 도움이 된 점, 최종 소감 등